

홍성문채

계 간

겨울

홍성문화원

제22권 4호 통권 153호

1989년 11월 23일 충청남도등록 충남바01100호

·발행인 : 이하영

·편집인 : 정재범

·발행일 : 2003년 12월 (겨울호)

·발행처 : 홍성문화원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 041) 632-3613)

·인쇄처 : 조양인쇄사 (☎ 041) 632-2363)



▲ 여하정

문화원 행사

- 2003년 문화원 행사/편집부/2

가족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⑥

- 용봉산④/조원찬/16

우리의 다짐

- 시간은 흐르고/편집부/6

홍주마당

- <한시>癸未年歲暮 再訪魯恩壇/우송 이해현/40

가을 비가 내리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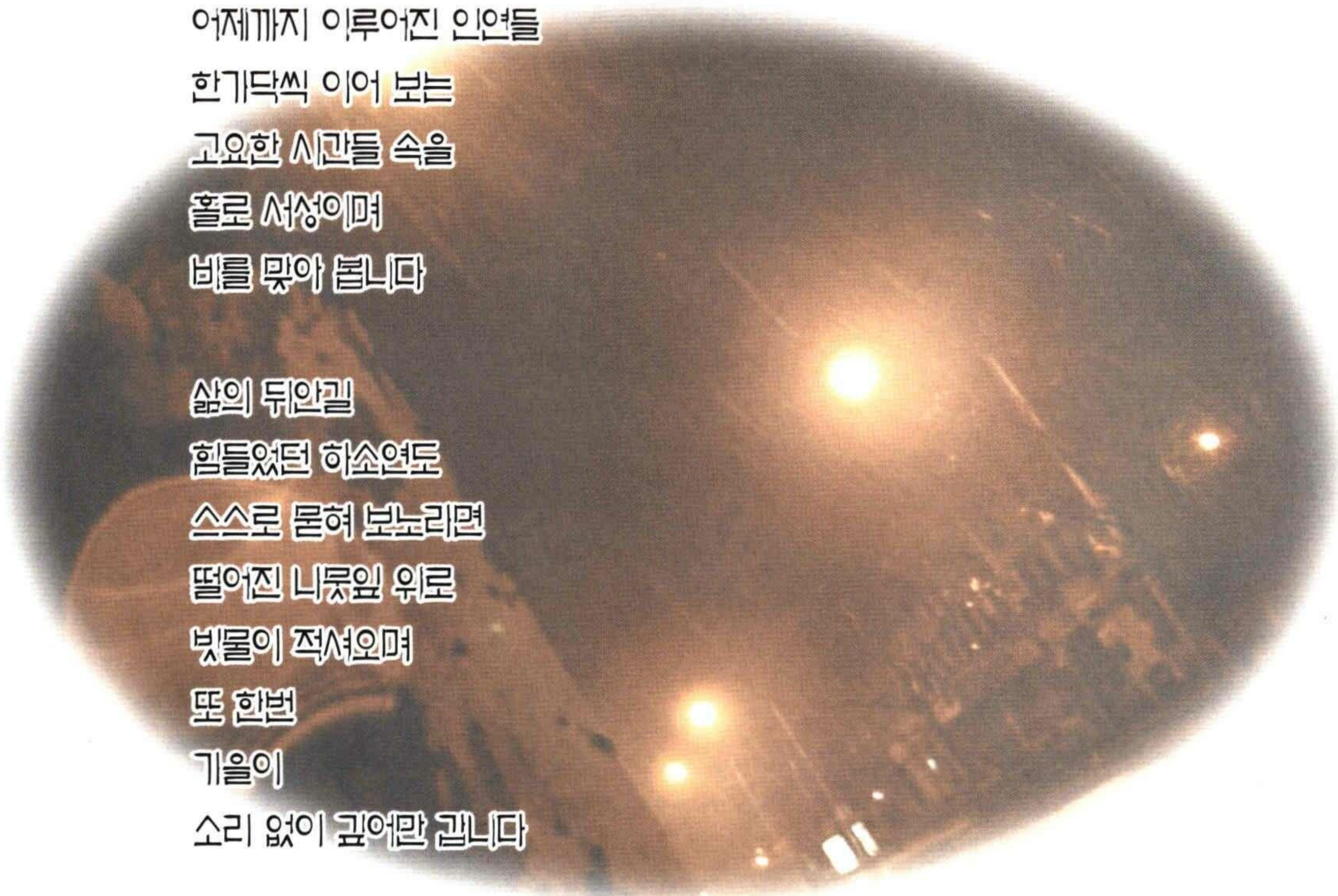
정재범 **홍성읍 오관리**

비가 내립니다

가을밤
가로등 아래
소리 없이 비가 내립니다

어제까지 이루어진 인연들
한기닥씩 이어 보는
고요한 시간들 속을
홀로 서성이며
비를 맞아 봅니다

삶의 두안길
힘들었던 하소연도
스스로 묻혀 보노라면
떨어진 니뭇잎 위로
빗물이 적셔오며
또 한번
가을이
소리 없이 깊어만 갑니다



홍성문차

2003/겨울

계간/팔지 않는 책

- 2 2003 문화원 행사 | 편집부
- 6 우리의 다짐 | 시간은 흐르고 | 편집부
- 7 문화원 소식 | 제9회 만해제, 제3회 지역문화축제 '한우리' | 편집부
- 12 홍성의 마을제 【洞祭】 ⑨ | 산신제
- 홍북면 상하리~하산 마을 - | 김정현
- 14 홍주의 얼을 찾아서 | 홍주목사 강인(姜綱) | 배동순
- 16 가족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⑥ | 용봉산④ | 조원찬
- 19 건강 | 내 집 갖기 집착증 | 김용신
- 20 홍주골 사람사는 이야기⑫ | 권기복
- 홍성풍물놀이 연구회, 이병상 님을 찾아서 -
- 25 우리고장의 명산을 찾아(5) | 홍성의 명산소고(名山小考) | 정태봉
- 30 담안에서 띄우는 편지 | 그 해 겨울의 포장마차 | 고광철
- 32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환경상식 백가지 | 편집부
- 주부가 정말 알아야 할 환경상식 스물 한가지③ -
- 35 思索의 샘 <3> | 생명을 사랑하자 | 편집인
- 37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한지① | 편집부
- 40 홍주마당
한시 - 癸未年歲暮 再訪魯恩壇 | 우송 이해현
라일락 향기 | 김정명
동강 | 최규원
어머니 | 이정옥
세월이란! | 주호창
피라칸사스와 몬스테라 | 구명희
- 48 알아보는 생활상식 | 생활의 지혜 | 편집부
- 49 편집후기 | 표지사진 작가소개 | 편집부
- 50 회원모집 안내 | 편집부

홍성문화원 발행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발행인 이하영

편집인 정재범

2003년 12월

통권 153호

1989년 11월 23일 등록

전화)041-632-3613

634-9659

인쇄처 · 조양인쇄사

계	사무국장	부국장	원장
2004. 1. 31			
집수번호			

2003년 신년교례회



- 일시 : 2003년 1월 3일(금) 오전 11시
 - 주관 : 홍성문화원
 - 장소 : 홍성군청 대강당
- 서로의 화합과 홍성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군내 각급 기관 단체장들간 상호인사의 자리였다.

◀ 한자리에 모인 각급 기관단체장들

제42차 정기총회



- 일시 : 2003년 1월 20일(월) 오후 4시
 - 주관 : 홍성문화원
 - 장소 : 홍성문화원 문화사랑방
- 2003년 홍성문화원의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의원들의 회의 모습

정월대보름 '한마당'축제



- 일시 : 2003년 2월 14일(금) 오후 4시
 - 주관 : 홍성문화원
 - 장소 : 홍성군청 앞, 홍주의사총 옆 논
-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민속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신밟기, 쥐불놀이 등의 민속행사로 어린이와 어른들이 하나되는 자리였다.

◀ 소원을 쓰고, 귀밝이술을 마시는 주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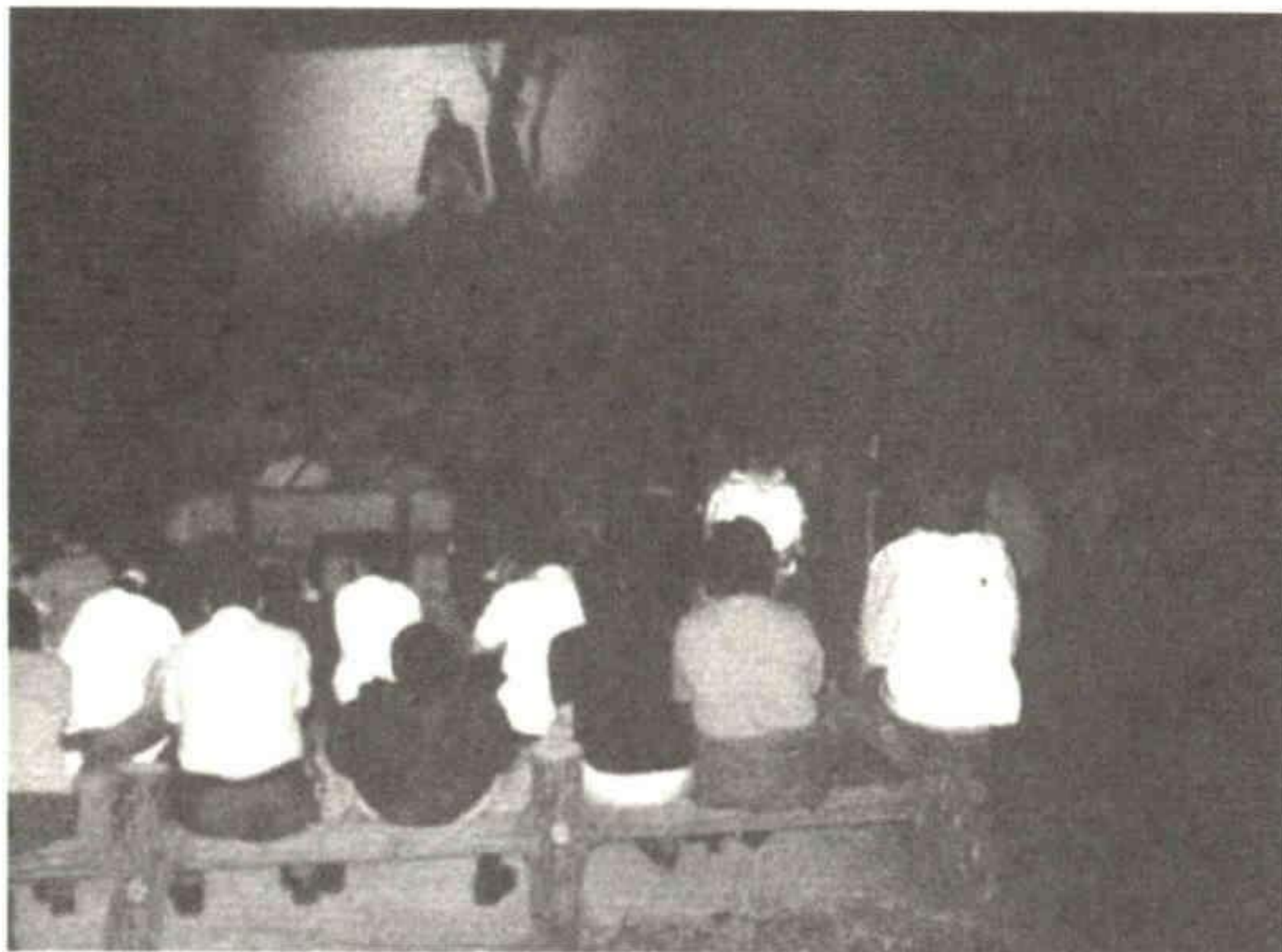
전통관례 및 계례 재현



- 일시 : 2003년 5월 19일(월) 오전 11시
 - 주관 : 홍성문화원
 - 장소 : 혜전대 야외무대
- 성인된 자로 하여금 올바르게 지키고, 행해야 됨을 가르치는 자리로 성년자들에게는 일생에 한번뿐인 평생의 좋은 경험일 것이다.

◀삼가례를 치루고 있는 성년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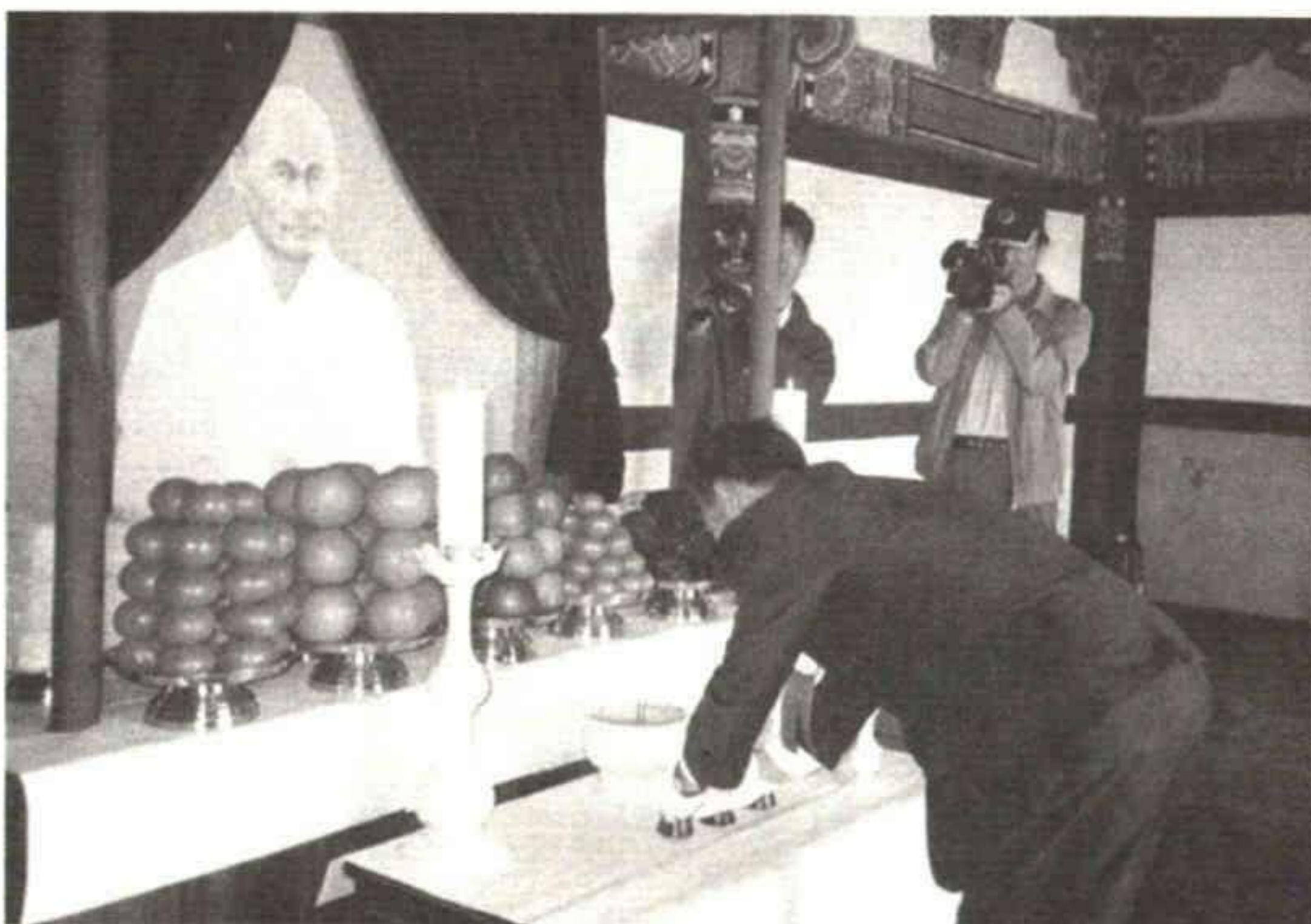
가족과 함께 하는 거리영화제



- 일시 : 2003년 5월 23일(금) 오후 8시
 - 주관 : 홍성문화원
 - 장소 : 푸른섬터
- 야외에 대형스크린을 설치, 가족과 함께 영화를 감상하며 오붓한 시간을 갖는 자리였다.

◀용기종기 모여 앉아 영화를 관람하는 주민들

제9회 만해제



- 일시 : 2003년 10월 23일(목)~25일(토) 오전10시
 - 주관 : 홍성문화원
 - 장소 : 만해생가지, 홍성군청, 푸른섬터 등
- 만해 한용운선사의 추모 및 추모행사의 자리로 문학과 음악이 있는 자리였다.

◀만해선사의 영정에 차를 올리는 모습

지역민 모두가 함께 하는 지역문화축제 '한우리'



- 일시 : 2003년 10월 24일(금) 오후 1시
- 주관 : 홍성문화원
- 장소 : 푸른섬터
 각종 문화예술단체와 개인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마당' 잔치로, 여러문화의 조화된 자리였다.

◀ 결성농요시연을 하는 모습

주민을 찾아가는 움직이는 문화원



- 일시 : 2003년 1월 ~12월
- 주관 : 홍성문화원
- 장소 : 홍성군내
 각 마을이나 학교로 찾아가 주민을 대상으로 홍성의 문화유적지 등을 슬라이드로 설명하여 우리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 슬라이드로 유적에 대해 설명을 듣는 학생들

역사·문화를 찾아서



- 일시 : 2003년 1월 ~12월
- 주관 : 홍성문화원
- 장소 : 홍성군내
 문화유적지를 이동하며 탐방, 학생들과 주민들이 유적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유적 보존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 유적지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는 학생들

문화원 문화강좌 《주부노래교실》



- 일시 : 2003년 3월 ~ 12월
 - 장소 : 문화사랑방
- 삶에 활력을 주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문화강좌 노래교실은 주부들의 문화생활을 도와주었다.

◀ 수강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

문화원 문화강좌 《서예교실》



- 일시 : 2003년 3월 ~ 12월
 - 장소 : 1층 도서관
- 서예를 배움으로써 정신을 가다듬는 시간과 열의를 가지고 한자도 같이 배울 수 있었던 문화강좌였다.

◀ 정신을 가다듬고 붓글씨를 쓰는 모습

문화원 문화강좌 《닥종이인형교실》



- 일시 : 2003년 3월 ~ 12월
 - 장소 : 흥성군내
- 자신의 성의가 깊은 작품을 주위사람에게 선물을 하거나, 아이들의 장난감을 만들 수도 있고, 집안을 장식할 수도 있는 문화강좌 시간이었다.

◀ 즐겁게 작품을 만들고 있는 수강자들

시간은 흐르고

혼란의 세파라 할까 혼탁의 세상이랄까? 모든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 건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이 1년도 안 되어 재신임을 국민투표로 묻고, 정치한다는 사람들은 각기 정당끼리 말들이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서민들의 먹고, 살기 걱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어렵다. 일부지역의 집 값은 부르는 게 값이고, 바닷물의 흐름조차 인위적으로 변형화하며 온 국토가 쓰레기의 오염으로 신음하고, 머지않아 식수로 쓰는 물조차 구하기 어려운 세상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자동차의 범람은 작은 읍 도로에서 밤이면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몰려 있으며, 가난한 산골 시골집 울타리 속에도 승용차 한 대씩은 보일 정도로 우리는 지금 한창 편리한 사회를 이루고 있다. 그러다 보면 현실의 비판 끝에 먼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가서 살겠다고 그것도 삼사십대 사람들의 이민 열풍이 일고 있다.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임신부들이 외국에 가서 아이를 낳아야 자식이라도 살기 좋다는 외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욕심이 생기게 되었다.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매일 TV뉴스란에는 강도, 살인, 사기 사건의 연속이다. 이젠 여자까지 은행 강도 짓을 하고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국민적 정서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뿐인가? 이름 있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금전관계 부정으로 검찰의 문을 뺏길나게 드나들고 있다. 희망의 상징인 교

육계는 어떤가? 사교육비 지출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드는 나라로 인정받고, 교육자 개개인이 10년전만해도 자기의 교육철학을 지니고 교단에서 고집도 부리면서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 지금은 많이 변해버리고 있지 않은가...

사색당과 싸움으로 국운이 쇠퇴하여 나라가 망했다가 8.15해방으로 희망도 있었으나 다시 6.25의 참상으로 국토가 폐허화 되었고, 신음 속에서 그나마 국토의 반쪽만이라도 민주화된 국가로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오늘의 현실은 왜 이토록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나. 사회구조에서 빈부격차의 심화로 발생하는 사안으로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삶에서 공생의 원리를 깨달을 수 없는가. 온 국민에게 근실하게 살면 희망이 있다는 미래 지향적인 정치를 더 잘 할 수는 없는가. 독거노인이 숨진 지 여러 날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절박한 사회를 예방할 수는 없는가. 엄청나게 발전되어 가는 과학의 물질문명 혜택을 온 국민이 공동으로 누릴 수 있는 방침은 없는 것인가. 입시제도에서 벗어나고 교육의 일반화를 통해 미래의 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인성, 예술적인 생활습관, 인간존중의 바람직한 인간의 감수성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이룩할 수는 없는가.

살기 편한 사회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추구하는 보통사람들의 갈망은 언제나 이루어질 건가. 우리 국민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슴에 지니고 살 수 있는 국가발전을 기원한다.

- 편 집 부 -

제9회 만해제, 제3회 지역문화축제 '한우리'

| 편집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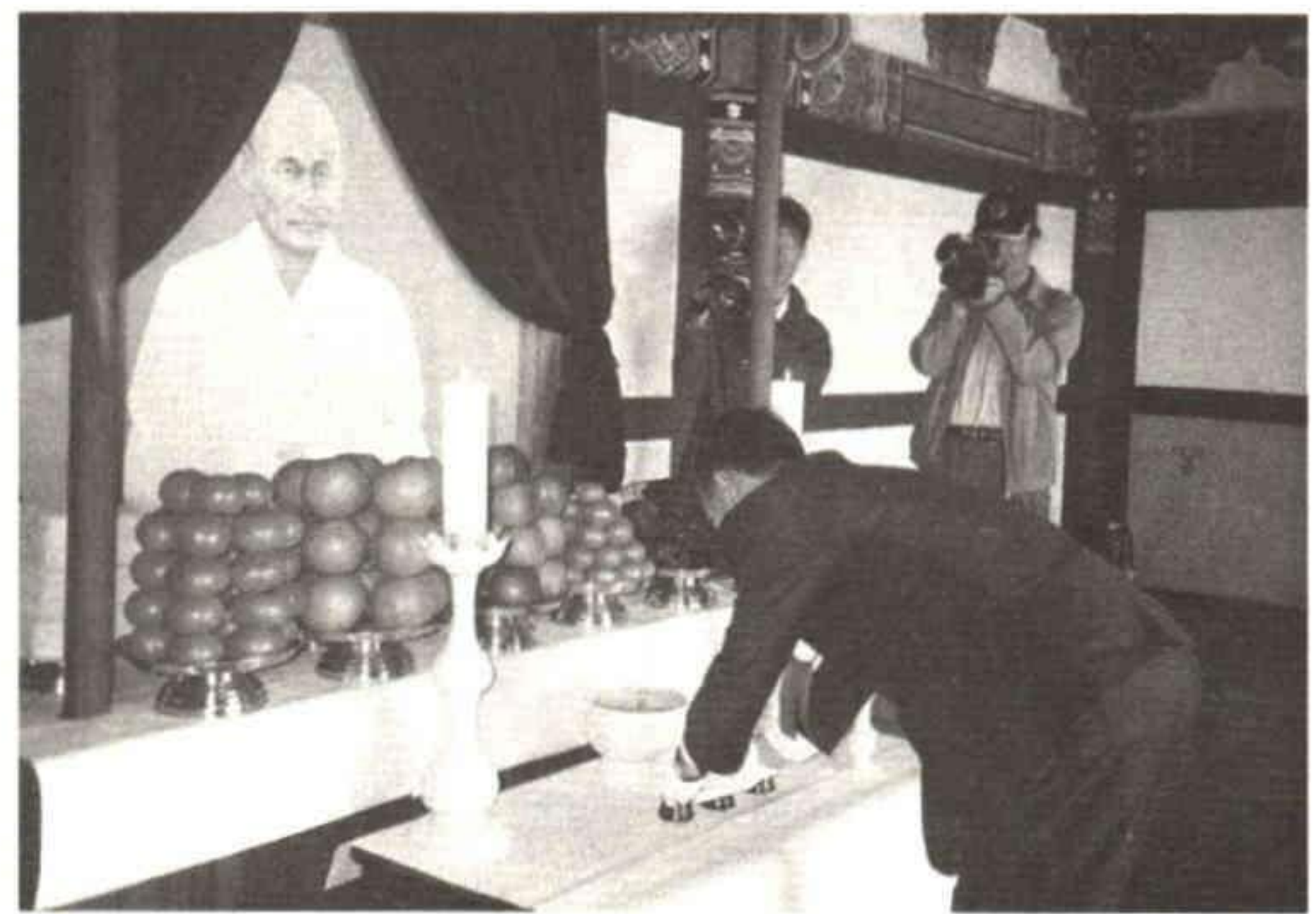
지역과 인물의 특성을 살려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를 열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9회에 이른 만해제는 흥성방문의 달을 맞아 열리는 삼색축제, 즉 남당리 대하축제, 광천김·토굴새우젓축제와 함께 10월에 개최되었다.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짧았던 탓에 조금씩의 착오가 있었지만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꾀하는데 일보의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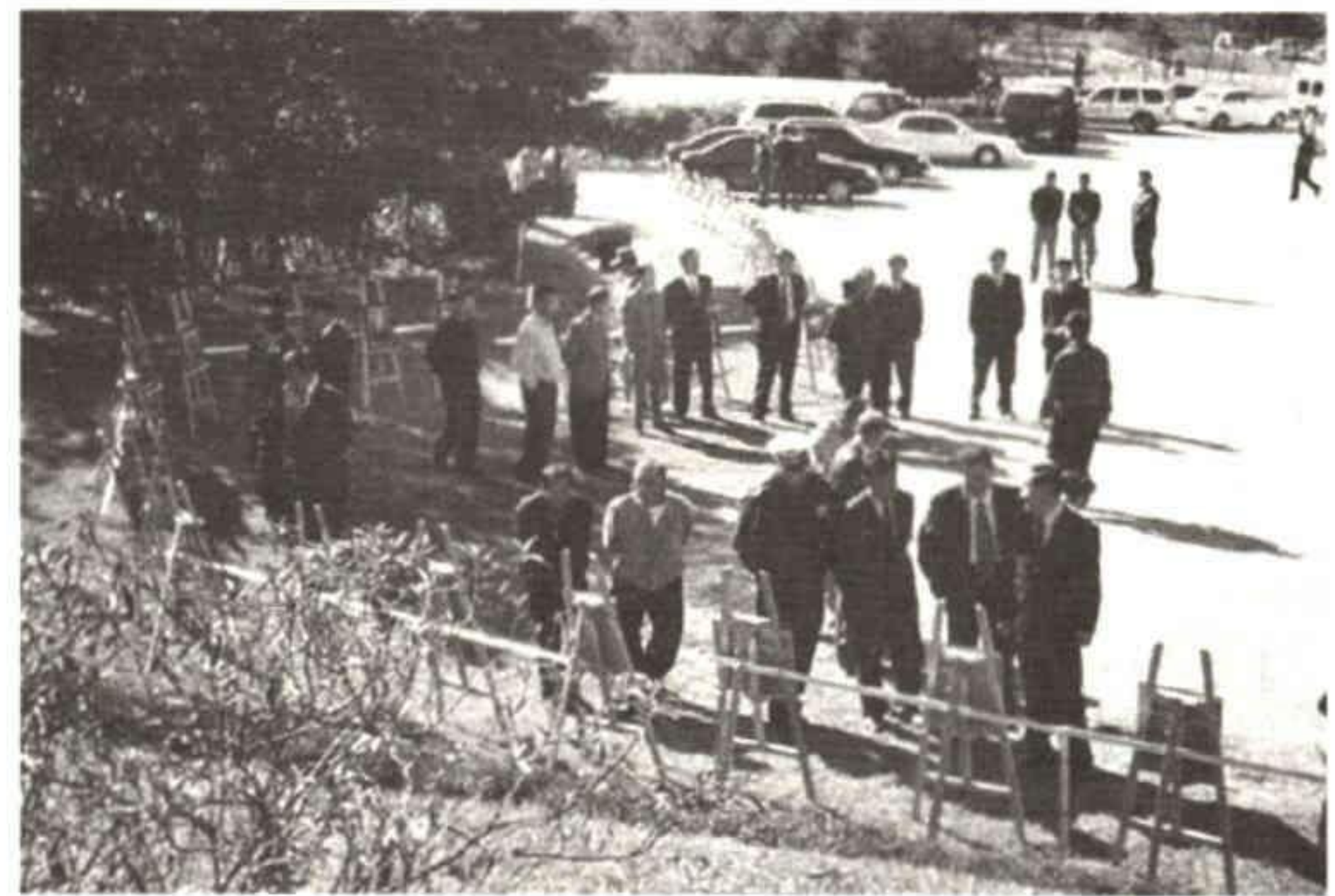
삼색축제 속에 만해제가 포함됐다는 것은 흥성의 지역행사 중 만해제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행사로 인식되고 있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9회 만해제는 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첫 번째 일정은 10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만해 사상 강의 및 추모다례 행사를 시



제59주기 추모다례



만해 유품사진관람 모습

작으로 해서 문학과 독립이 있는 오찬, 유품사진 전시, 만해백일장·사생대회·휘호대회 등의 일정으로 첫날 행사를 시작했다.

만해사상 강의는 친구대 전보삼교 수가 만해 한용운선사의 삶과 정신에 대해 차가운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서도 열변을 토하는 모습을 보고 강의는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의 표정과 입



만해선사의 삶에 대해 강연중인 전보삼교수

■ 제9회 만해제 일정표

일자	시 간	프로그램	장 소
10.23 (목)	10:30~12:00	만해 사상 강의 및 추모다례	생가지
	12:00	문학과 독립이 있는 오찬	생가지
	10:30~13:00	유품사진전시	
	13:30	만해백일장·사생대회·휘호대회	푸른쉼터
	15:00	청소년만해시인학교	군청제1회의실
	16:00~17:00	만해특강	홍성고
	18:00~20:00	문학의 밤	군청후정
	20:00	리셉션	
10.24 (금)	09:00	제17회 전국 남·여 시조경창대회	홍주문화회관 소강당
	13:00	한우리 〈작품전시〉 사진, 미술, 서예, 전통공예(짚풀공예, 옹기작품, 땀땀이 작품등), 지역문화지간행물, 국화꽃등 단체 및 개인전시, 각종 작품 전시 및 판매	푸른쉼터
		13:00~17:00	청소년만해시인학교
	15:00	한우리 〈1부 공연〉 풍물, 어린이 장고공연, 청소년 내포제시조, 사물놀이, 쿡푸, 민요, 북소리, 노래교실합창, 검도시범, 댄스스포츠, 결성농요시연 〈2부 공연〉 장고춤, 추억의 하모니카, 사물놀이, 트럼펫공연, 청소년댄스, 대학동아리공연	푸른쉼터
10.25 (토)	09:00	제17회 전국 남·여 시조경창대회	홍주문화회관 소강당
	13:30~15:30	심포지엄	군청 대강당
	13:00~15:00	MC. THE MAX, 손현주 팬사인회 및 우유먹기대회	홍주의사총
	14:30~15:00	거리퍼포먼스	홍성시내일원
	15:00~16:00	만해추모한마음걷기대회	홍주의사총→푸른쉼터
	16:00~16:30	기념식	푸른쉼터
	16:30	만해추모공연(1부)	푸른쉼터
	18:00~19:00	만해추모공연(2부)	
19:00~21:00	푸른음악회 공연(3부) 〈서울전통타악진흥회〉		

에서 놀라움을 엿볼 수 있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기억에 오래 남을 내용으로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는 강의였다.

유품사진 전시는 만해생가지 한쪽에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이 더 가깝게 만해선사의 일생에 대해 배우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생가지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홍성청년회의소 주관으로 만해백일장·사생대회·휘호대회가 푸른쉼터에서 열렸다. 홍주읍성 위에 앉아서 홍성 시내를 바라보며 글과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학생들은 편안하면서도 즐겁게 자유로운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청소년만해시인학교 입교식이 홍성군청 제1회의실에서 시작됐다. 한국문인협회



청소년만해시인학교 입학식



'문학의 밤'에 공연 하는 모습

홍성군지부 김정헌회장님의 입학식 말씀 후, 만해생가지에서 열띤 강연을 해주신 전보삼 교수의 강의와 학생들에게 '문학이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유진윌 교수가 강연해주셨다. 진지한 자세로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서 멋진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며, 나도 만해 한용운 선사처럼 곧고 올바른 생활을 하고, 문학에 대한 자신들의 열정을 생각하는 듯한 눈망울들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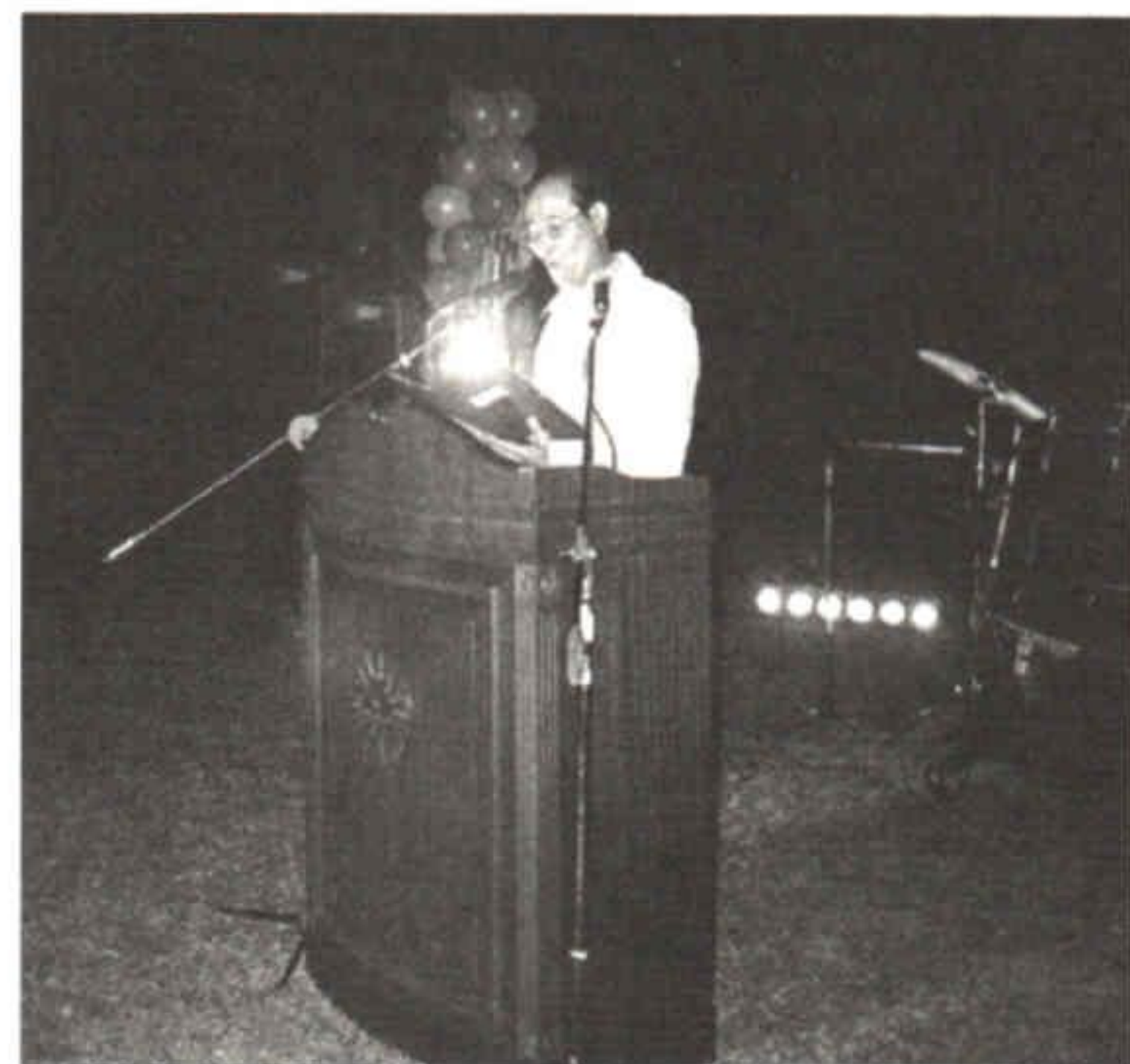
전보삼 교수는 만해청소년시인학교 강의를 끝내고, 만해특강을 하기위해 홍성고등학교 강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올바른 청취자세로 전보삼 교수의 강연내내 모두들 교수님의 목소리에 감응된 듯 조용했다. 좋은 분위기 속에 시작된 특강은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와 함께 끝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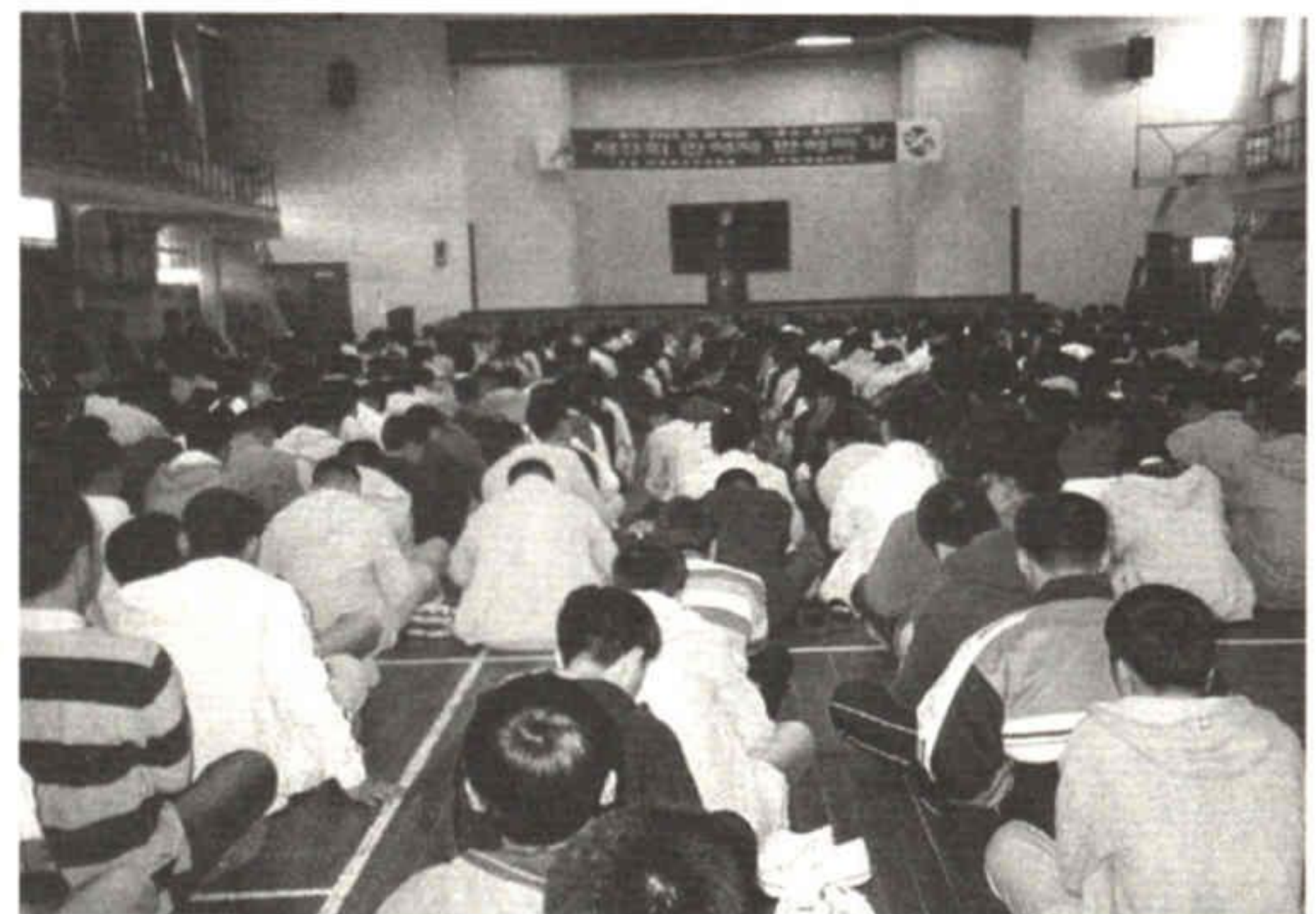
한국문인협회 홍성군지부가 주관한, 군청 후정에 마련된 문학의 밤은 여하정을 뒤에 두고

시를 읊고, 민요를 듣고, 춤을 바라보는 그곳은 낭만이 가득했다. 옛 정취를 느끼며 한용운선사의 시를 듣는 것은 행운이었다.

두 번째 일정으로 10월 24일(금) 오전 9시, 제9회 만해제 일환의 제17회 전국남·여시조경창대회가 홍성군내포제시조보존통합시우회 주관으로 홍주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역량있는 인물들의 경연으로 펼쳐졌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25일(토)



시낭송하는 모습



만해특강

까지 행사가 이루어졌다.

청소년만해시인학교는 이동수업으로 진행되었고, 3일간의 일정으로 학생들의 문학에의 열의를 키우는 시간이 되었다.

원래 따로 실시하던 지역문화축제 '한우리'를 만해제 일환의 행사로 포함시켜 개최하게 되었다. 오후 1시에 시작된 한우리는 작품 전시와 공연 등으로 이루어졌다.

사진, 미술, 서예, 종이작품, 간행물, 국화꽃 등을 단체와 개인들이 전시하였다. 작품을 전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종이를 이용한 머리핀 만들기나 풍선을 이용한 모양 만들기 등을 무료로 가르쳐 직접 만들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옹기종기 모여 하나라도 놓칠세라 푹망푹망한 눈으로 선생님 손동작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손을밤에 시조를 폼지락거리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정말 귀여웠다.

옹기전시를 관람하는 동시에 구입할 수 있었고, 땡땡이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할 수 있었다. 가훈 써주기에는 어른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졌다.

한우리 1부에는 흥겨운 풍물과 귀여운 고사리 손들의 어린이 장고 공연, 흥성의 내포제시조를 보존하고 이어나갈 청소년 내포제시조, 사물놀이, 쿵푸, 우리가락 민요, 심장을 뛰게 만드는 북소리, 문화원 문화강좌 노래교실 주부들의 합창, 어린이들의 날렵한 몸놀림의 댄스스포츠, 결성의 오랜 역사의 하나인 결성농요시연으로 이루어졌다.

여러 가지의 문화가 하나되어 알찬 내용으로 주민들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해 주었다.

2부 공연에는 장고춤, 오랜만에 들어보는 하모니카, 사물놀이, 울림으로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트럼펫공연 등, 마지막은 대학동아리의 열정적이고 힘이 느껴지는 무대매너로 주민들과 학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두 번째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3일 일정을 위한 준비에 다시금 분주히 움직여야 했다.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일정이 혹시나 어긋날까 조바심을 내며 세 번째 일정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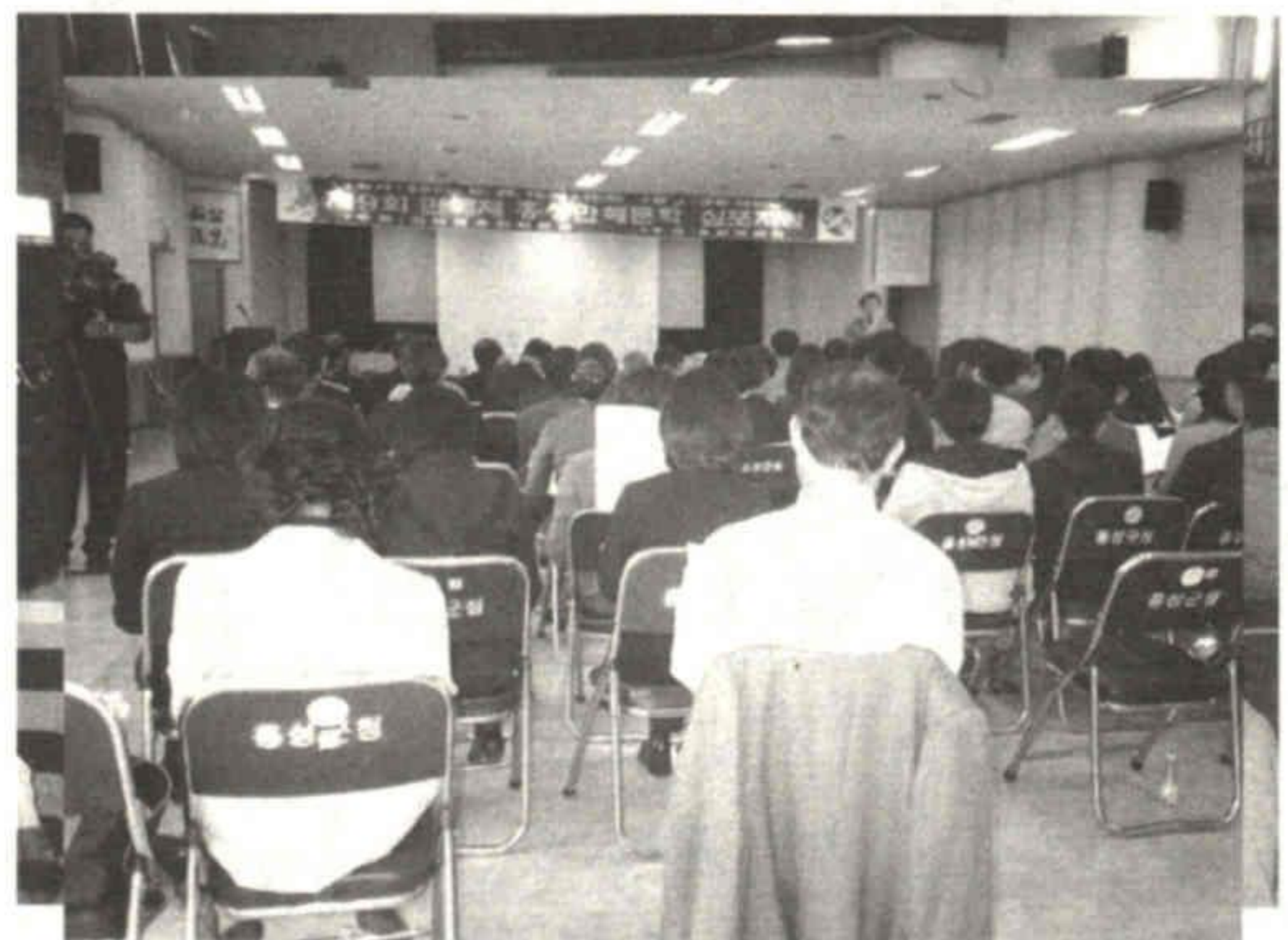
흥성의 발전적 가능성을 알아보고, 만해한용운선사의 업적에 대한 내용의 '심포지엄'이 흥성군청 대강당에서 흥성군민들을 모시고 김재홍



스포츠댄스를 추고 있는 아이들



종이접기를 직접 해보고 있는 아이들



만해문학 심포지엄

교수의 '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내용과 예술의 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내용의 권영민 교수, 김종희 교수의 만해문학의 서사성에 관한 내용, 흥성의 발전적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최혜실 교수의 강연으로 심포지엄을 가졌다.

강연이 시작된 같은 시각 행해진 연예인 팬사인회와 우유먹기대회가 흥주라이온스 주관으



한마음 걷기 대회

로 이루어졌다. 이어서 팬사인회와 우유먹기대회가 끝나고 만해추모한마음걷기대회가 홍성군민들의 많은 참여로 홍주의사총에서 출발하여 푸른섬터에 도착하는 코스로 성황리에 시작되었다. 걷기 대회에 참여하여 티셔츠와 경품추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건강도 지키고, 경품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행사였다. 푸른섬터에 모인 걷기대회 행사 참가자들은 기념식과 만해추모공연(1부, 2부), 푸른음악회공연(3부)을 관람하였다.

만해추모공연 1부 「만해를 기다리며」

홍성시내일원에서 '거리퍼포먼스'가 청운대학교 방송연기학과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거리퍼포먼스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공연이기에 '아름다운시절'을 테마로 한 퍼포먼스에 주민들의 관심이 쏠렸고, 친구나 연인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연이었다.

푸른섬터에서는 기관단체장들의 자리로 마련된 기념식과 뮤지컬콘서트, 만해시낭송, 흥겨운 춤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 형식의 공연 등으로 눈길을 끌었다.

만해추모공연 2부 「만해를 기다리며」

우리소리 우리가락, 흥겨운 우리가곡, 만해영상/만해시낭송 후 '만해를 기다리며'를 2부 공연의 끝으로 곧이어 폐회식을 가졌다.

마지막 공연인 푸른 음악회는 서울전통타악진



푸른음악회 공연 모습

홍희의 주관으로 공연이 시작되었다.

공연을 관람하는 주민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비나리와 징이 발산하는 소리가 매력적이었던 기원굿을 시작으로, 소리북의 여러 장단과 더불어 극적 효과를 더한 한국의 전통예술의 맥인 판소리와 고수의 장단에 흥이 나는 북가락과 소리공연, 살풀이 춤, 모듬북의 웅장함과 우리가락의 신명나는 모듬북 합주, 판굿으로 공연이 끝이 났다.

여기저기 무리를 지어 무대를 바라보며 같이 환호하고 움직이며 하나되는 음악회였다.

3일간의 일정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지금...

모든 일정을 마치고 행사 뒷정리를 하면서 좀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 것과 행사진행의 미숙했던 점에 대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갔다.

공연이나 축제가 있는 곳에 관람객이 없다면 그것이 공연이나 축제가 될 수 없다. 사람들의 적극적인 행사참여는 자신들의 문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문화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참여를 해줄 것을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늘 행사를 마치고 나면 후회의 생각들이 물밀듯 밀려오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좀더 나은 내일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오늘의 후회를 성공적인 행사진행의 탄탄한 뿌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글을 마친다.□



산신제

- 홍북면 상하리 하산 마을 -



김정현 동화작가 · 광동초등학교 교사

- 조사 일자 : 1999년 2월 24일
- 조사 장소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한상숙씨 댁
 - 제보자 : 한상숙 (남, 50세, 대졸, 교사)
 - 사는 곳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 나서 자란 곳 : 사는 곳과 같음

한상숙씨는 어려서부터 민속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하산 마을에 산신제 지내는 것을 관심 있게 보고 들어왔다.

1. 명칭 : 산신제
2. 신격 : 호랑이
3. 신단의 위치 :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는 용봉산 동쪽 기슭에 위치해 있다. 용봉산은 기암괴석이 많고 산수가 빼어나서 작은 금강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등산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마을 뒷산인 용봉산 기슭에서 바라다보면 멀리 홍성 시내가 보이고, 산 아래로는 홍성과 덕산 방면으로 통하는 지방도가 시원스럽게 뚫려있다. 마을의 왼쪽으로는 청석수련원이 있고, 바로 오른쪽으로는 상산 마을이 있으며 용봉초등학교가 있다. 마을 앞쪽으로는 용봉천이 흐르고 있다.

용봉산은 골짜기마다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골짜기 이름을 통해서 불교의 흔적들을 엿볼 수 있다. 절골, 악귀봉골(산세가 뽀쪽 뽀쪽함), 산제당골, 가마밥골, 미륵골, 은골 등의 골짜기가 있고, 앞쪽으로는 싸래기내(용봉천), 쥐산, 고바위, 뚝뚝 등이 있다.

하산 마을에서 산신제를 지내는 곳은, 마을을 뒤에서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용봉산 줄기 산제당골 중턱쯤에 있다.

4. 신단의 형태 :

산신당은 자연 암석으로 되어 있다. 하산 마을 바로 뒤쪽에 있는 산제당골을 오백 미터쯤 올라 가면 큰 바위가 있다. 큰 바위가 병풍처럼 넓게 펼쳐져 있는데, 제사를 지내는 곳은 사람들이 여러 명 앉아도 될 만큼 넓고 평평하다. 이 바위를 산신바위라고 부른다. 산신바위 주변에는 오래된 소나무도 여러 그루 서있다. 산신바위에서 바라다보면 멀리 홍성 시내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5. 제의 목적 :

옛날에는 호랑이의 피해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신제를 지냈다. 지금은 마을의 번영과 주민들의 무사 안녕을 위해서 지내고 있다.

6. 제일 :

음력 정월 보름 이전에, 산신이 하강한다는 호랑이(寅)날을 잡아서 지낸다.

7. 제의 주관자 :

제관 한 명과 축관이 주관한다. 제관은 생기복덕이 닿는 사람으로 축관 한 명과 함께 4명을 선출한다. 제관은 초하루나 초이튿날 선출한다. 제관 중에서 한 명은 제물을 준비하고, 나머지 한 명은 산신당 주변을 정리정돈 한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과 축관이 산신제를 실질적으로 주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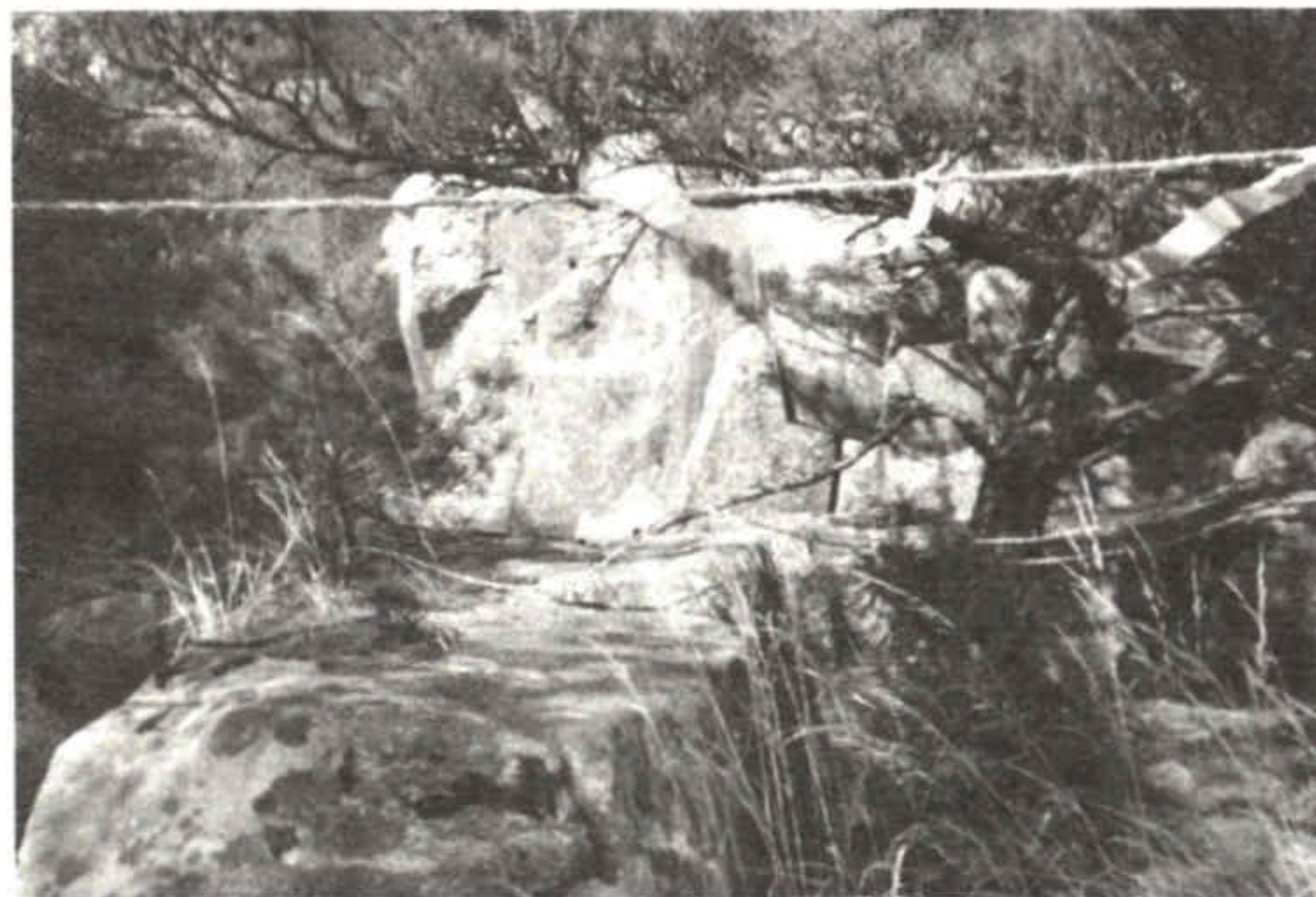
8. 금기 :

제를 지내기 전에는 나무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무 같은 일을 하다가 몸에 상처를 입어서 피를 보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임신 등의 부정이 있어도 제를 지낼 수 없다. 죽은 부정은 3일을 연기하고, 산 부정은 7일을 연기한 후에 제를 지낸다.

제물을 구입할 때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목욕을 한 후에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걸어서 시장으로 가야 한다. 제물의 값은 절대로 깎아서도 안 되고, 한번 들어간 가게에서 반드시 사야 한다.

9. 제물과 제의 절차 :

제물은 돼지 머리, 백설기, 탕, 포, 냉수, 삼색실과 등을 준비한다. 제의 절차는 먼저 산신당과 제관 집에 황토 흙과 금줄을 치고 샘제를 지낸다. 당일 오후 4시경에 제관 한 명과 축관 한 명이 산신당으로 올라간다. 제물을 진설한 다음에 재



▲ 산제터 전경

배를 하고 축을 읽고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세대주의 소지만 올린다. 소지가 잘 올라가면 한해의 신수가 좋다고 한다. 산신제에 사용하는 제기는 산신당 바위 밑에 보관한다. 산신제의 모든 절차는 대개 해가 지기 전에 일찍 끝난다.

10. 제의 비용과 결산 :

산신제의 경비는 걸림에 의하여 마련한다. 걸림 액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성의껏 낸다. 결산은 제의를 끝내고 내려와서 음식을 나눠먹으며 자연스럽게 한다.

11. 마을 사람의 신앙 태도 :

하산 마을은 산신제에 대한 금기 사항이 엄격하다. 산신제를 지낼 때는 제관과 축관만이 참여한다. 외부인의 출입은 엄격하게 금지시킨다.

12. 유래 및 전설 :

하산 마을 주변에는 불교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전설로는 마을 앞에 용봉천(싸래기내)에 관한 것이다. 용봉산에는 큰절이 있었는데, 절에서 끼니 때마다 쌀을 씻는 뜨물과 싸래기가 마을 앞의 용봉천까지 흘러 내려왔다고 한다. 그래서 용봉천을 '싸래기내'라고 부른다는 전설이 있다. 한편 마을 바로 아래로는 쥐산이 있고, 싸래기내 건너편에는 고양이 형상과 닮은 바위와 둥병이 있었다.(지금은 경지 정리를 하면서 둥병을 메워버렸고, 바위도 묻어서 없어졌다.) 쥐산에 있는 쥐들이 싸래기내로 흘러 내려오는 쌀을 주워 먹으러가고 싶어도 건너편에 있는 고바위(고양이바위)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는 전설도 있다.□

흥주목사 강인(姜綱)



배동순 향토사학자

인조 5년 1월 23일

상이 이르기를,

“강인(姜綱)을 평양에 보내어 박립·강숙과 일을 같이 보도록 하라.”

하였다. 이식(李植)이 아뢰기를,

“속히 장수 한 사람을 결정하여 경병(輕兵)을 인솔하고 평양에 가서 성을 구원하도록 하는 일은 그만 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문룡(毛文龍)의 존몰(存沒)에 대해서는 들어서 아는 바 없으나 적들과 내통하지 않으 저마음 분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정을 명(明)나라에 알려서 임진년처럼 남군(南軍)과 화기(火器)를 요청하면 어떻겠는가?”

하였다.

인조 5년 2월 3일

비국이 강인(姜綱)을 회답사(回答使)로 삼아 5일에 보낼 것을 청하니, 따랐다.

조정에 바야흐로 진창군(晉昌君) 강인을 보

내어 오랑캐에게 회답하려고 하는데, 이 한가지 조목에 대해서는 마땅히 엄한 말로 거절하여야겠다. 적이 이 한 가지 조목을 버리고 이에 화친과 우호를 요구한다면, 성하(城下)의 수치가 있을지라도 우선은 눈앞의 위급함을 늦추어야겠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과 따르기 어려운 요청을 하나라도 따르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화란이 더욱 혹독할 것이니, 예전의 귀감이 될 만한 일은 멀리 있지 않고 송 나라 시대에 있었다. 이에 오늘날의 계책은 경기의 병졸들은 남한산성에 주둔하여 웅거하고 삼남의 병사들은 한강을 차단하고 서북의 군사들은 적의 후방을 막게 하면 칼날을 예리하게 하여 기회를 보아 섬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강좌(江左) 중심지의 형세가 외롭고 위태로워 삼군(三軍)이 한데서 거처하고 백관이 벽에 기대고 있는데, 군량마저 바야흐로 떨어지고 주사(舟師)도 모이지 않는다. 연강(沿江)의 여러 둔영(屯營)에 병사의 식량이 모두 모자라고, 서쪽 군사가 새로 패전하였는데 북쪽 군사가 이르지 않는다. 무너지려는 걱정이 바로 조석에 있으니, 지금이 바로 충신 열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조서를 읽고 혈성(血誠)으로 의리에 보답할 때이다.

인조 5년 2월 5일

대신과 비국 당상이 청대하니 인견하였다. 윤방이 아뢰기를,

“적이 평양에 오래 머물면서 도리에 어긋난 땅은 하다며 차라리 군가가 마한지어져 이리 상 따를 수 없습니다. 강인으로 하여금 결단하고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인조 5년 2월 9일

진창군 강인이 치계하였다.

“제찰사의 군관 강우간(姜禹侃) 등이 노중(虜中)으로부터 돌아와서 ‘오랑캐가 이미 진군하여 지금 서흥(瑞興) 차유령(車諭嶺)에 이르러는데, 장차 경성으로 향하여 출발하려다가 사신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잠시 군사를 주둔시켰다.’고 하기에, 신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또 이사웅(李士雄)이 ‘호장이 지금 한 마디 말로 화친을 결정하고 군사를 철수하려면서, 다만 명조(明朝)와 서로 단절하라는 것으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화가 종사에 미칠 것이요, 따르자니 대의가 엄절합니다. 급히 지휘하소서.”

인조 5년 2월 10일

강이 치계하기를,

“호병이 처음에는 보산평(寶山坪)에 병사를 주둔시키고 하치이 격전하기를 기다리다가 하더니, 갑자기 오늘 평산(平山)으로 이주한다면서 고집하기를 ‘군사가 군량과 풀이 없어 부득이 앞으로 가지만 지금 이후로 다시는

한 걸음도 전진하지 않기로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겠다.’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충돌하는 걱정에는 수일 동안은 무사함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니 우서으 강홍립이 돌아가기를 기다리소서 다스의 곤절은 모두 홍립이 입으로 전하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고, 치계하기를,

“신이 평산 보산평의 호장이 주둔한 군영에 이르자, 호인 고(高)·가(哥)·유해(劉海)·박통사(朴通事) 등이 신을 보고 국서를 보자고 요구하기에 신이 꺼내어 보여주니, 유해가 글로 써서 보여주기를 ‘보아하니 문서 내용에 타당하지 않는 곳이 있으니 강화하기 어려울 것 같다. 또 천계(天啓) 두 글자도 타당하지 않으니 계(啓)자를 총(聰)자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가?’하기에, 신이 2백년 동안 신하로 섬긴 의로 대답하니 매우 성내지는 않았습니 다. 야간에 호장이 강홍립·오신남(吳信男)·박난영(朴蘭英) 등과 고(高)·유(劉) 두 호인을 신이 유숙한 곳으로 보내왔는데, 고·유가 말하기를 ‘화친하는 일은 이미 결정되었으나 다만 한가지 일이 완결되지 않았다. 이 일이 완결되지 않으면 물러갈 수 없다. 전진하려고 하면 민정이 놀라 동요하여 화친하는 일에 방해가 있을 것이며, 여기에 머물러 결과를 보고 돌아가려 하면 들판에 노숙하게 되고 군량과 풀도 곤란할 것이다.’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본도의 관찰사에게 이문하여 그로 하여금 군량과 풀을 나누어 배정하게 하였습니다. 화친하려는 뜻이 실정에서 나온 것 같으므로 홍립이 그 상황을 말로 개진하기를 기다리려 합니다.”

용봉산④



조원찬 결성공업고등학교 교사

<우리가 살고있는 홍성, 우리는 홍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가 홍성을 모른다면 어느 누가 홍성을 알아줄까? 마음이 아픈 일이다. 홍성에는 선사시대 이래 무수히 많은 유적·유물이 남아 있다. 이것은 그저 역사적인 가치만 있을 뿐만 아니라, 천혜의 관광 자원이며, 공해 없는 상품이기도 하다. 늘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은 모른다. 그래서일까? 우리가 사는 곳도 잘 모르면서 여행하면 먼 곳, 가보지 못한 곳부터 찾는다. 이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을 홍성에 오도록 하면 어떨까?>

가족과 함께 떠나는 시간 여행, 홍성의 용봉산에 대하여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는 용봉산¹⁾에 남아 있는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용봉산에 남아 있는 문화유산은 불교 유적·관방 유적·기타 유적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를 현장 답사에 편리하도록 권역별로 묶으면 용봉사 권역, 빈절골 절터 권역, 미륵불 권역, 천승골 절터 권역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번 호에는 빈절골 절터와 미륵불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상하리 석불

상하리 석불은 지금 홍성에 없고, 국립 공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상하리 석불이 공주로 가게 된 사연은 이렇다. 상하리 석불은 본래 가마밭골 절터의 불당지 동쪽 골짜기에 남겨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근에 사는 주민이 몰래 다른 곳으로 옮겼고, 이 사실을 안 홍성군의 협조로 불상을 다시 되찾게 되면서 국립공주박물관에 이전 전시하게 된 것이다. 홍성에 역사 박물관이 없었기 때문인데, 아쉬운 일이다.

가마밭골 절터는 홍성읍 소재지에서 예산군 덕산면으로 향하는 609번 지방도를 따라 약 5km의 위치에 있는 용봉산의 빈절골과 미륵골 사이에 펼쳐진 넓고 완만한 '가마밭골' 골짜기의 끝에 자리한다.

주> 층층의 기암절벽이 금강산과 비슷하다 하여 홍주의 소금강(小金剛)으로 불리우는 용봉산. 고려시대에는 북산(北山). 조선시대에는 팔봉산(八峰山)이라 불리웠지만, 일제의 식민통치가 이루어지던 1925년 이전의 어느 날 갑자기 한 몸·한 줄기, 기암괴석(奇巖怪石) 자랑하던 팔봉산은 억지로 허리가 잘린 채 두 개의 이름이 붙여졌다. 홍성의 용봉산과 예산의 수암산.



상하리 석불은 어두운 색의 화강암으로 조각하였는데, 머리는 없어졌고 몸체만 남아있다. 머리 부분을 제외하면, 현재의 높이는 205cm이며, 어깨 폭은 75cm이다. 상하리 석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에는 세 줄의 표현(삼도 三道)이 뚜렷하고, 목 밑으로 양어깨에는 통견식(양쪽 어깨를 모두 감싸고 입은 옷)의 법의(法衣)를 걸쳤다. 앞·뒤면 모두 U자형의 옷주름이 평행하게 표현되었는데, 매우 두꺼우며 무릎 밑까지 표현하였다.

손의 표현인 수인(手印)은 홍성지역의 다른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른팔은 곧게 펴서 손바닥을 허벅지에 붙이고, 왼손은 바로 굽혀 왼쪽 어깨에 붙여 시무외인을 결하는 것처럼 하였다.

불상의 몸체 아래 부분에는 받침대에 꽂을 수 있는 사각형의 축꽃이(가로 40cm, 세로 20cm, 두께 10cm)가 있어 별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미루어 아마도 처음부터 별도로 만든 좌대(座臺)에 불상을 꽂아 세울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별석(別石)의 좌대에 따로 받을 조각하는 것은 용봉사 주변에 있는 용봉사 마애여래입상이나 신경리 마애여래입상과 비슷한 모습이다. 그러나 지금은 머리와 함께 좌대도 전하지 않는다.

- 빈절골 절터의 마애보살입상

빈절골 절터는 홍성읍 소재지에서 북쪽으로 있는 홍북면 상하리의 하산 마을에 빈절골이라고 불리는 곳의 계곡 정상부에 있다. 절터는 계곡의 위쪽에 축대를 쌓아 평평한 대지를 만들고 그 안에 여러 건물들을 지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세한 것은 알기 어렵다.

바위면을 깎아 만든 보살입상은 절터의 남서쪽으로 아래, 절의 입구에 새겨져 있다. 상하리 마애보살입상은 크지 않은 바위면에 일정한 구획을 정한 다음, 남서쪽을 바라보는 보살 입상을 얇은 돌을 새김으로 조각하였다. 보살상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머리에는 연꽃 무늬를 장식한 보관(寶冠)을 쓰고 있는데, 가운데에는 바위의 마모로 확연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보주형(寶珠形)의 구획 안에 조그만 불상인 화불(化佛)을 새겨 놓았고, 좌우로는 크고 작은 두 개의 연꽃무늬를 각각 장식하여 마치 삼면화관(三面花冠)을 쓴 것처럼 조각하였다. 아울러 보관의 아래 부분



은 2 개의 굵은 띠와 함께 그 아래로는 반원형의 띠를 돌려 보관을 장식하였다.

얼굴 모습인 상호는 용봉사 주변의 마애불에 비해 평면적인 모습이다. 얼핏 어설픈 웃음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인자함보다는 경직된 근엄함이 지배적이다. 반원형의 눈썹 아래로는 가늘게 뜬 눈이 치켜 올라갔고, 코는 볼륨없이 뭉툭하다. 귀 또한 평면적으로 처리되면서 선으로만 간략하게 표현하였는데 거의 어깨까지 내려오고 있다.

목은 얼굴과 신체가 거의 붙은 모습으로 처리되어 매우 짧은데, 이로 인하여 부처의 목에 상징적으로 새겨지는 세 개의 줄인 삼도(三道)가 목 아래까지 길게 늘어져 옷주름과 혼동될 정도이다.

양쪽 어깨를 감싼 통견식의 두꺼운 법의(法衣) 때문에 신체의 표현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팔과 상체 부분에서 겹쳐진 옷 선을 찾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완만한 U자형의 옷주름이 평행한 선으로 처리되면서 가슴 앞에서 무릎 아래까지 묘사되었다. 이 가운데 오른쪽 법의 자락은 오른 팔을 휘감으면서 뒤로 넘겨졌고, 왼쪽의 옷자락은 왼 팔에 걸쳐 무릎 아래까지 내려졌다. 무릎 아래로는 선각(線刻)에 의존한 완만한 U자형으로 물결무늬를 이루듯 양쪽으로 갈라진 군의(裙衣) 자락을 표현하였다. 군의 아래로는 나란히 표현된 발가락을 조각하였는데 크기는 모두 같다. 전체적으로 긴장감과 탄력성이 사라진 평면적인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처님의 손 모습인 수인(手印)은 전체적으로 홍성지역의 독특한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다만 오른 손의 경우 엄지를 제외한 다른 손가락은 약간 구부린 모습으로 표현하였으며, 왼 손은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려 밖으로 향하면서 엄지와 검지를 구부린 아미타 구품인(九品印)을 짓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오른손은 내려서 다리에 붙이고 왼손은 들어서 시무외인을 짓는 자세는 홍성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수인으로서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찾아볼 수 있는 특징적인 수인이다.

몸에서 나오는 빛을 표현하는 광배(光背)는 머리 쪽의 두광(頭光)과 몸의 신광(身光)으로 구성하였는데, 둥근 원형의 두광은 세 가닥의 계단식 선으로 조각하면서 목까지 내려왔고, 신광은 어깨 부분에서 흐려지기는 했지만 긴 타원형으로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균형미와 비례미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작품이지만, 세부적인 조각 수법에서는 미숙함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도식화·간략화된 옷주름의 표현 및 신체의 표현에서는 긴장감이 사라지면서 탄력감마저 떨어지는 평면적인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내 집 갖기 집착증



김용신 **수필가·김내과의원 원장**

새는 둥지를 갖는다. 알을 낳고 새끼를 까고 기른다. 보금자리에서 재잘재잘 대화를 나눈다.

사람은 집에서 안식을 찾고, 아이를 기르며 가르치고, 사랑을 나누며, 에너지와 즐거움을 위해 밥(식사)을 먹는다.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고, 음악을 듣고, 연주하기도 한다. 세상이 일터라면, 집과 가정은 삶의 의미를 실현하는 곳이다. 내 집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은 지극히 당연하고, 본능적이며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에 지나쳐서, 다른 것을 과다히 희생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건강을 해칠 정도로 식비를 줄이고, 필요한 만남의 비용도 줄인다. 오직 내 집 갖기가 행복해지는 최상의 조건으로, 아니 그 자체가 곧 행복이라 믿어 의심 않는다.

우리 주위에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본다.

“그이가 간경화로 죽었대요!”, “고시 패스 십년 만에 땡땡거리보지도 못하고 고혈압으로 쓰러졌대요!”, “그토록 벌면 뭐해! 마누라가 이웃 빈털터리하고 도망갔대요!”

목표를 향한 집념과 노력이, 현재의 삶 자체와 너무 떨어져서, 성취는 했건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 결부된다면 그건 낭패다.

내 집 갖기가 평생 소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하긴 서울 시민의 55%가 전세신세라 하니 그 소원이 참으로 절실하다. 해가 바뀔 때마다 “방 비워-” 하는 집주인의 독촉소리를 당해 본 사람이라면 그 참담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매년 번 것보다 전세 값이 더 올라가는 현실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어본 사람이라면 가치관이 바뀌게 마련이다. 내 집! 내 집! 오직

내 집만이 지상과제다. 또 집의 소유는 부동산 투자의 가치가 높아서 더욱 기승을 부린다. 부동산불패의 신화가 반세기동안 전설처럼 굳어진 오늘의 현실에서야! 부동산 소유욕이 깊은 상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집 한 채 마련하고도 그칠 줄 모른다. 콘도를 산다. 별장을 사자! 펜션을 지어볼까! 온통 소유욕에 광분해 있다.

내 집 갖기로 빛나간 과잉 소유욕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다. 우리나라 주부의 60%가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한다.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주부도 30%가 된다고 한다. 이젠 삶의 건전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표시다. 평소의 생활에서 흐뭇한 미소와 동정심과 깊은 배려, 감격과 감사로 재충전되지 않는 생활의 피로가 누적된 데서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일의 성취감은 긍지를 높이고 자존감을 강하게 하여 건강한 정신을 북돋운다. 이의 결핍이 반대급부로 주부우울증을 키우는 것 같다.

서울 부자의 상당수가 집을 세 채 내지 여섯 채를 가지고 있다 한다. 이제 주택정책의 심각한 고려를 할 때가 온 것 같다.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과 주부우울증의 사회적 치유를 위한 차원에서도 그렇다.

부자들의 공동체 의식의 부재도 심각하다. 노력과 행운의 댓가로 잘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웃의 가난함을 전혀 개의치 않음은 너무나 근시안적이다. 불과 한세대 40년이 가기 전에 자신의 자식이나 손자들이 사회의 구조적 불행에 같이 휩싸여서 가게 마련인 것이다.

‘언덕 위에 예쁜 집 짓고 둘이 함께 행복하자던..’노래에서 더 시야를 넓히는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홍성풍물놀이 연구회, 이병상 님을 찾아서



권기복 **홍주중학교 교사**

재인(才人)의 길을 찾아

팽과리, 장고, 북, 징이 어우러져 고저장단(高低長短)으로 뿔어져 내는 음향이 청중들의 가슴마다 무수한 화살로 박혀들었다. 청중들은 어안이 병병한 채, 앞은반사물놀이가 끝난 지 한참 만에야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이어서 판국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동적인 풍경이 무대를 가득 메웠다. 사물(팽과리, 장고, 북, 징을 말함) 외에도 소고와 날라리 등이 추가되었다. 사물잡이들의 상모돌리기가 눈을 어지럽혔다. 상쇠의 부포놀이는 필자로서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한 자 반에 이르는 대롱 끝에 매달린, 접시꽃보다 서너 배는 뒹직한 움직임은 꽃 덩어리였다. 대롱을 세우고 상쇠의 움직임에 따라서 춤을 추는 부포는 말 그대로 환상적이었다.



백제문화제 농악경연대회에서

전화를 하였다. 한 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였다. 지난 늦가을, 홍성예총 개막식 행사장에서 인사를 나누었던 터여서, 서로간에 알아보는 정도였다. 필자의 학교 앞에서 만나 이병상 회장님이 사는 갈산면 동산리로 향하였다. 꾸밈이 없고 소탈한 분이어서 그런지, 금방 가까운 대화가 오갔다.

- 마을이 어디에 있습니까?
- = 서산 방향으로 구항면과 갈산면의 경계에 위치합니다. 우리 동네 어떤 집은 안방은 갈산면이고, 화장실은 구항면에 있는 집도 있지요.

갈산까지 잘 뒹여진 4차선 도로를 따라 차는 내달리고 있었다. 서로의 시간 때문에 오후 5시에 가까이 다가간 해는 서산(西山)에 걸쳐 있었다. 구항 소재지를 지나, 얼마 안 되어서 마을 입구였다. 낮은 언덕 위로 꽤나 멋있게 지어진 마을 회관과 교회, 일반 주택들이 들어차 있었다. 여느 시골답지 않게 마을 세가 큰 마을임을 느낄 수 있었다. 도로에서 100여 미터 안쪽으로 들어갔다. 집 앞에 규모가 큰 창고와 축사가 눈에 띄었다. 대문 앞에는 직경 50밀리미터는 뒹직한 강관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 = 축사를 더 지으려고 합니다. 지지분하지요?
- 축사도 다 짓습니까?
- = 예. 이 앞의 축사들도 다 내가 지은 겁니다.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ㅁ자 형의 집이었다. 시골에서는 그래도 있는 집안의 집 구조였다. 거실과 주방을 겸용한 문을 열고 들어가니, 부인과 아이들이 인사를 했다. 시골 여인답지 않게 예쁘신 부인과 딸(갈산중, 2) 지은, 아들(갈산초 3, 1) 선용과 지용이었다. 아이들도 -솔직히 말하면- 부인을 닮아서 예쁘고, 잘 생겼다.



안면도 꽃박람회장에서 가족과 함께

- 고향은 어디입니까?
- = 이 집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군대생활 이후로 서울에서 7년 정도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사를 했었죠. 이곳에서 고등학교(홍주고 1회)를 졸업하고, 인천대학 체육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나, 원래 그림에 재능이 있는 편이어서, 형의 권유로 디자이너가 된 겁니다.
- 다시 고향에 내려오게 된 계기는요?
- = 디자이너를 하다보니까, 서울의 호텔이나 레스토랑, 나이트클럽을 안 다녀본 곳이 없을 정도예요. 디자인을 남보다 멋있고, 특이하게 해야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사니까

위장병이 생겨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요.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시골에 내려와서 결혼도 하고, 양돈을 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한우 사육으로 방향을 바꿨죠. 한 때 부도를 맞아서 더욱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에 넣어도 타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였지요. 짠 소금이라구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 부인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 = 중매로 결혼하였지요. 시골에 와서 산다니까, 시집온다는 여자가 없더라구요. 친구들도 서울 있을 때, 아예 결혼하고 내려오지 않았냐고 하면서 장가가기는 다 틀렸다는 식이었지요. 그래서 어렵사리 결혼했습니다.
- 그런데도 미인을 만나셨으니, 하늘이 준 복인 것 같습니다.
- = 무슨 미인이라구요.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사는데 (그러면서, 다섯 살 연하라고 자랑삼아 한 말씀 보탤다.)
-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 현재 아이들의 조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두분 다 정정하십니다. 아버님은 교직에서 정년 퇴임하신 지, 12년 정도 지나셨구요. 거기다가 애들 셋하고 해서, 일곱 식구가 살고 있지요.
- 농사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 = 한우가 50여 두 정도 됩니다. 벼농사는 작작 반, 임차 반해서 백여 마지기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농 기계도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었다. 지금은 농사를 지어도 모두 기계의 힘을 빌어서 하지 않던가! 그러니,

혼자서 백여 마지기의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만큼 억척스럽고, 일을 무서워하지 않는 의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도, 가도 구도(求道)의 길

잠시 담배 한 대를 태우러 밖으로 나왔다. 어스레 사위는 어둠에 묻혀있었다. 초승달이 남천(南天)에서 노를 젓고 있었다. 수많은 별들이 웅기종기 모여 풍물을 하는 듯 했다. 아니면, 상쇠의 신명나는 팽과리 소리에 두 눈을 빛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4차선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들의 바퀴 구르는 소리가 생생했다.

- 언제부터 풍물을 하게 되었습니까?
- = 옛날부터 우리 동네가 풍물을 즐겨 했지요. 코흘리개 때부터 풍물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일 겁니다. 홍성읍내에서 농악경연대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서 걸어가서 구경하고 다시 걸어온 적이 있어요. 지금처럼 반듯한 길이 아니라, 비포장에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서 갔다왔지요. 어린아이로는 먼길인데도 어려운 줄을 몰랐어요.
- 어려서부터 풍물을 좋아하셨군요?
- = 아예, 몸에 배었지요. 중학교 다닐 때에는 어른들 따라서 북을 치기도 하였어요. 그러다가 고향을 떠나서 살면서, 풍물을 접할 기회를 얻지 못했지요.
- 그럼, 언제 다시 시작했습니까?
- = 서울 생활을 접고 시골에 낙향하면서부터 제대로 풍물에 입문하게 되었지요. 우리 마을에 상쇠를 하시던 이석찬 웅(83세)을 찾아갔지요. 팽과리와 녹음기를 들고 갔어요. 몇 번씩 찾아가서 팽과리를 치는 것을 듣

고, 녹음을 해 와도 감이 잡히지 않는 것이예요. 한 번은 나를 제자로 삼아서 대를 이으실 의사가 없느냐고 여쭙었지요. 그러자, 그 분께서 젊은 사람들을 모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동네 형님뻘 되는 분들을 모았지요. 바로 아랫집 사랑채가 넓어서, 그 집 사랑채에서 모였어요.



앞은반사물놀이 장면

- 신명이 나셨겠네요.
- = 그럼요. 동네 어른들이 치는 것을 계속 따라서 하다보니, 한달 정도 지나자 귀가 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 어른들에게서 모두들 눈을 뜨게 되었지요. 상쇠는 나와 다른 한 분이 전수를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나은 편이었지요. 그 다음에는 홍성군노인농악회 상쇠를 맡은 노영환 님을 찾아갔지요. 그 분의 알선으로 <홍주골풍물패>의 일원이 되어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 그 후에는 어떻게 배우셨나요?
- = 주로 여름철과 겨울철을 이용하여 사물놀이 강습기관을 찾아다녔지요. 충남 부여군 옥산면, 구 홍연초등학교 자리에서 김덕수 사물놀이 강습소를 찾아가서 초등학생들과 어울려 장구를 배웠지요. 또 <김덕수 사물놀이>의 상쇠이신 이광수 님에게 팽과리를 배웠어요. 이광수 님이 온양에서 지도하다

가, 예산군 오가면 구 양막초등학교 자리에서 강습소를 열어서 여름, 겨울철이면 빠짐 없이 다녔지요.

- 홍성풍물놀이연구회는 언제 구성했나요?

= 개인사정으로 <홍주골풍물패>에서 탈퇴하게 되었지요. 반년 정도는 풍물에서 손을 떼고, 민요에 심취했어요. 그러나, 풍물을 떠날 수가 없더군요. 지난 1998년에 민요인이신 이명자님께서 야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 사용을 기꺼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 해부터 한두 사람씩 모이기 시작하여 <홍성풍물놀이연구회>를 구성하게 되었지요. 올 봄에는 홍성교도소 맞은편, 한적한 곳에 사무실을 갖게 되었습니다.

- 현재, 회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서산 해미읍성에서 회원들과 함께

= 30명 정도 됩니다.

- 회원님들도 생업에 종사할텐데, 언제 연습 하나요?

= 별스럽게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한 분, 두 분 모이게 되지요. 그러면 서로 장단을 맞추어 연습하곤 합니다. 아마나도 어려운 시기에 풍물을 몰랐다면, 미쳐버렸을 지도 모릅니다. 한동안 풍물을 하다 보면,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져버립니다.



홍주아문 앞에서 지신밟기 하는 모습

- 홍성풍물놀이연구회의 활동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정기공연은 2001년부터 3회 실시하였지요. 지난 2000년에는 매현문화제 농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매년 초청공연을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고장의 각종 문화 행사에 초청 공연을 해왔습니다. 광천새우젓 축제나 남당리 대하축제, 만해제와 한우리 축제 등에 참가하였지요. 서울에서 재경향우회 등의 자리에도 초청 받아서 공연하기도 해요.



한우리 축제에서의 공연 모습

- 제1회 한우리 축제는 제가 사회를 보았어요. 공연한 모습은 기억나는데, 회장님은 기억을 못하겠어요.

= 저도 그래요.

- 홍성풍물놀이연구회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풍물패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많은 사람들

인생을 꾸밈에 있어서 무엇인가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깨달았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구도(求道)의 길이 아닌가!

에게 보급하고 싶어요. 또한, 후진들을 양성하여 대를 잇게 하고 싶어요. 배움에는 끝이 없잖아요. 나는 지금도 시간만 나면, 각종 국악 연수를 찾아다닙니다. 언제 어떤 자리를 가도, 배워올 것은 반드시 있더라구요.

- 그래요 어느 분야라도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가족 자랑 좀 해 보시겠어요.
= 그런 것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교육자이셨다는 것 말고는……. 농사꾼 아내가 집안 일하는 것이 자랑이겠습니까, 애들이 학교 잘 다닌다고 자랑이겠습니까?

- 다 자랑이네요.(함께 웃음) 아이들한테 바람이 있으시다면?

= 자신들의 주어진 여건에서 소질을 찾아내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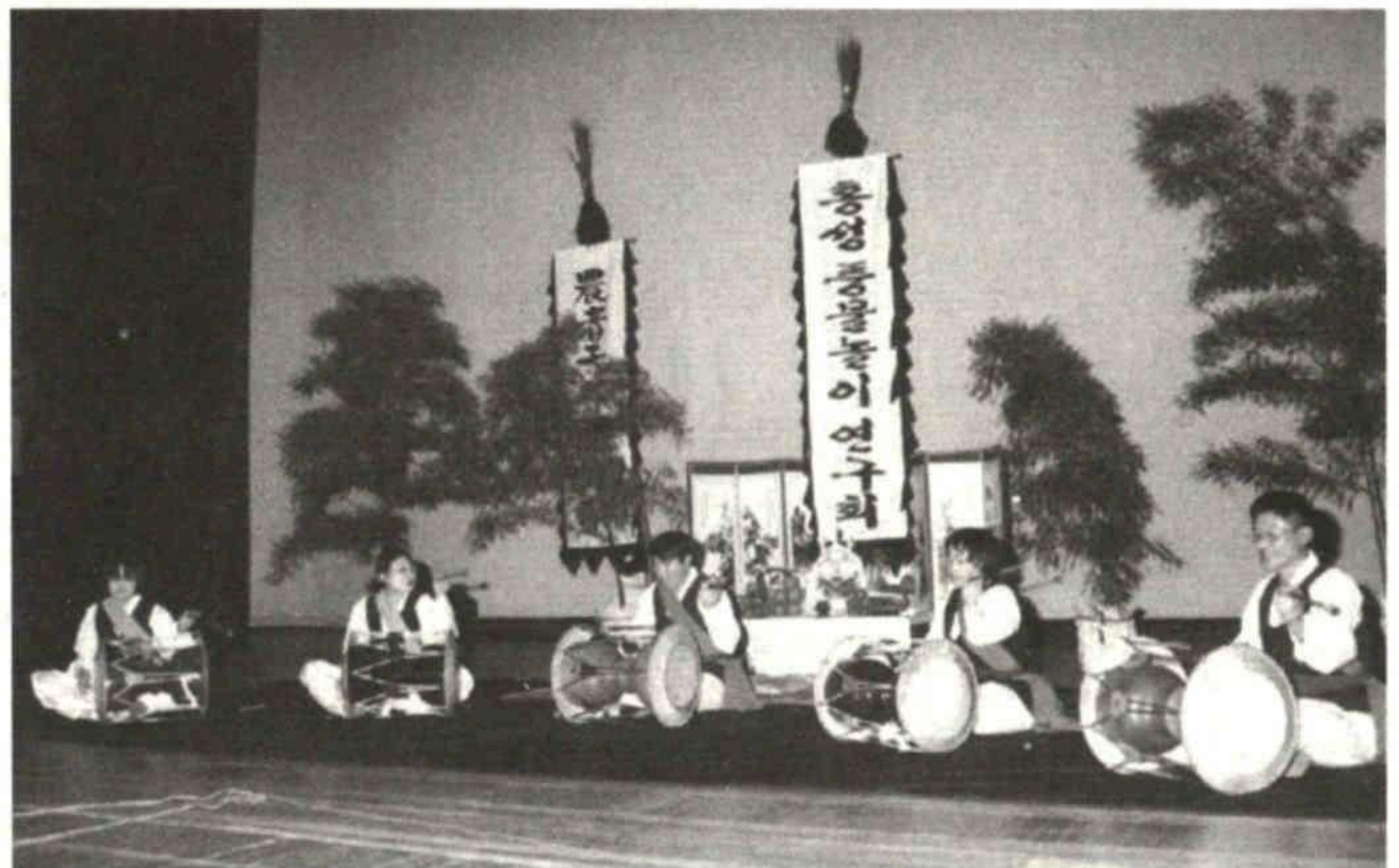
- 생활 철학이랄까, 평소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신의를 지키는 것을 가장 중시합니다. 살다보니 본의 아니게 신의에 어긋나는 점도 있어서 혼자 반성도 하고, 다른 분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집을 나와서 사무실에 갔다. 필자의 사진 요청 때문이었다. 사무실은 공연 실습장이 30여 평이고, 부대 시설까지 40여 평은 족히 넘었다. 실

내를 모두 방음용 스폰지로 도배를 한 공간이었다. 베토벤의 옆집 사람들도, 피아노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였다는 이야기처럼 미리미리 예비함에 수공이 갔다. 사무실에서 몇 장의 사진을 챙기고, 밖으로 나왔다. 가까운 식당에 들러서, 불에 넣어도 타지 않을 사람에게 저녁을 대접받았다. 본인 스스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필자가 첫 번째로 허용된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병상 님과 헤어져서 집을 향했다. 인생을 꾸밈에 있어서 무엇인가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깨달았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구도(求道)의 길이 아닌가! 이는 우주의 원리와의도 같은 것이요, 우리 인생의 원리와의도 한 맥을 형성하는 이치이다. 이병상 님은 다시 사무실에 가서 팽과리며, 장구를 두들겨 대실 것이다. 접시를 깨는 스트레스 해소비용을 얼마든지 절약하면서…….



홍성풍물놀이연구회 공연 모습

홍성의 명산소고(名山小考)



정 태 봉
홍성강남공인중개사

□ 풍수재해요새지(風水災害要塞地)로서의 명산

홍성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높은 산이 솟아있어 겨울에 차갑게 휘몰아치는 북풍이나 이른봄 중국 대륙에서 불어오는 불순한 강한 황풍(黃風) 또는 여름에 남서쪽에서 잔인하게 강타하는 태풍을 막아주고 있어 지정학적으로 북 받은 곳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홍성의 천재(天災)를 방어하여 주고 있는 산들은 우리나라의 척추 격인 태백산맥에서 뻗어온 차령산맥의 지맥인 동쪽에 있는 해발 484m의 봉수산(鳳首山, 일명 대흥산)이요, 서쪽은 해발 394m의 일월산(日月山)이며 남쪽은 해발 790m의 오서산(烏棲山)이라 할 수 있다.

동쪽을 지키고 있는 봉수산은 예부터 군사적요새지(軍事的要塞地)로서 유명하다. 산정(山頂)에 있는 임존성(任存城)이 그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이 임존성은 홍성주민들에게 무한한 역사적 가치를 부여해준다. 이곳이 바로 백제부흥군이 나당연합군의 공격에도 굳건히 버텨낸 곳이기 때문이다.



▲ 봉수산 임존성은 천재요새지로 명산이다

봉수산이 백제부흥군의 기지가 된 첫 번째 이유는 지형상의 자연조건이다. 홍성방향인 서쪽과 북쪽은 경사가 급하여 적의 침공으로부터 방어가 쉽고, 또 불화살을 쏘고 바위나 돌을 굴러 내리는 등 공격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임존성 안에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수만 명이 생활할 수 있는 물이 있고, 나무가 많아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군막을 세우기 적합하다. 그리고 많은 병사들이 훈련하기에 좋을 만큼 땅은 넓고 크다.

둘째는 이곳이 서북부지역의 중심지이므로 군량의 각출과 운반이 쉽고, 저축의 조건이 맞기 때문이다. 이에 걸맞게 성을 조사하여 보니 성벽의 규모와 상태는 부분별로 다르고, 높이는 약2-3m정도로 남쪽성벽은 굴곡이 심하였으나 성의 안쪽으로는 도랑이 많았다.

또한 성의 바깥쪽은 석축으로 쌓았으나 안쪽은 돌과 흙을 혼합하여 쌓여있다. 물이 나오는 샘을

자세히 찾아보니 성안에는 여러 군데에서 물이 나오고 있었다.

남쪽 성벽은 길이가 30km쯤 되는데, 수구(水口)는 70cm정도의 폭을 설치하고 있었다. 성의 주문으로 추측되는 남문터는 성벽이 두터우며, 성문의 일부로 생각되는 석축구조가 보이고 있다.

성내에는 아직도 백제시대의 토기와 기와 조각 등이 가끔 발견되고, 계단식 건물터가 나오고 있으니 백제부흥군의 군사적 요새지였다는 것이 증명되는 듯하다. 이제 이 군사적 요새지는 홍성을 천재지변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명산임에 틀림없다.

□ 영험(靈驗)한 신령(神靈)속의 명산

일월산은 서쪽의 중국대륙에서 불어오는 불순한 황풍을 막아주고 있지만, 홍성을 지켜주는 신령의 진산(鎭山)으로도 유명하다. 예부터 이 산은 백월산(白月山), 일월산(日月山) 또는 월산(月山)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원래 白자 月자는 하늘에서 전수받은 천명(天命)으로 신령을 상징한다. 대개 이런 산에는 신단(神壇)을 모시고 하늘님께 제사를 지내왔다. 지상에서 가장 존귀한 곳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일월산은 지금도 양천사상의 신화를 산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산지와 암석의 여러 곳에서 옛날 제사를 지냈던 유흔과 형상을 찾아볼 수 있었고, 이곳을 지나노라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지맥의 정기와 신령들의 배합과 영적인 기(氣)가 감돌고 있었다. 특히 산정에 있는 여신상을 모신 신당에는 이 산의 정기가 집합되어 있는 것 같고, 일월(日月)의 양기를 더 많이 집도하고 있는 것처럼 감수되어 왔다. 우리 인간과 하늘이 일치하여 인간의 유한(有限)과 무력을 하늘로부터 구원받고자하는 욕망이 신성스럽게 싹트고 있는 듯하다.

일월산은 이렇게 홍성주민들에게 메마른 사람들의 가슴에 신의 영감이 육신에 합쳐 현세의 행복을 갈구하고,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고자하는 신앙심을 싹틔우게 하니 또한 명산이 아닐 수 없다. 일월산에

이러한 신앙을 모시고 제(祭)를 지내게 된 것은 11세기로 홍주를 운주(運州)라 부르던 때였을 것이라 하니, 인간이 하늘님께 의지하였던 운주시대의 여명기로 생각된다. 지금도 그 시대에 산에 모태사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흔적들이 기암 위에 비석 같은 것이 있고, 바위면에 색인되어 있는 한자들과 부호들이 낙수(落穗)되어 새겨져있으니 홍성주민들의 신령산으로 숭앙 받을만한 산이라 하겠다. 이러하듯이 정상에 올라서면 심신이 더없이 편안하여 진다.



▲ 일월산에는 신령스러운 바위들이 군데군데 놓여 있다

일월산으로 부르게 된 영험한 신성함은 운치마저 한없이 성스럽게 바라보이게 한다. 잔잔한 600여만 평의 내포평야에 걸쳐 있는 거대한 군함을 연상케하는 홍성읍 시가지가 망망대해를 향하여 이제 막 발동하는 고동소리로 변하여 들리는 듯하다.

푸르른 창공을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승리의 깃발을 울리는 듯한 공설운동장이 한결 근대화스럽

게 바라보인다. 너른 대지 위에 정리작업을 맞추고 바둑판처럼 아스팔트길을 그어놓고 그 위에 돛을 올리는 듯한 부영아파트를 비롯한 검찰청 법원 그리고 상가 등을 짓는 건축소리가 발전만을 지향하는 기계소리로 화합하여 일월산에 부딪쳐 메아리 되어 들려오고 있다.

드높은 은하아파트와 경성, 청솔, 현대아파트들이 배의 돛대 되어 우뚝 솟아 풍향을 타고 막 바다로 나가려하고 있다. 다시 뒤돌아보면 점찍은 듯 펼쳐져 있는 서해의 도서가 장관을 이루고, 간월도 옆으로 천수만 AB지구의 너른 평야가 서부극에 나오는 황야처럼 펼쳐져 이국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다시 북으로 바라보면 용처럼 꿈틀대는 용봉산 너머로 삼교평야의 너른 들이 넘실거리고, 남으로는 그림처럼 둥글게 단독으로 솟아있는 오서산. 그 너머로 남쪽 나라의 향수가 남풍을 타고 젖어온다. 이 일월산의 정상에서는 홍성이 세계 속으로 비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약동을 발견하게 되니 또 다른 명산이라 하겠다.

□ 풍부한 자원(資源)으로서의 명산

홍성의 남쪽에 놓여있는 오서산은 산정의 능선을 타고 보령시 쪽인 남으로 가노라면, 넓은 평원에 억새밭이 펼쳐져 있어 억새꽃 선형(線形)이 시적인 정서를 느끼게 한다. 전국에서 억새명소 5번째로 1만여 평에 이르는 이 억새밭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 억새밭의 분방하면서도 활달한 모습은 서해의 쪽빛바다 위에 놓여 있는 원산도를 비롯한 크고 작은 섬들로 어우러져 있다. 한 폭의 그림 같아서 보는 이로 하여금 초연한 마음을 갖게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해마다 가을이면 억새꽃축제가 벌어지기도 한다. 그것을 배경으로 동쪽으로는 청양과 공주지역의 산등성이들이 날아가는 기러기 떼처럼 포개져 푸른 하늘 밑에 장엄하게 늘어서 있다.

그 중에 청양의 구봉산에 있는 구봉광산(九峰鑛山)은 70년대에 전국 금생산량의 6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그곳은 양창선(楊昌善)이라는 광부가 매몰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고, 그 사건으로 결국 폐광되었다. 이 구봉광산의 지맥은 오서산 자락에 있는 황보광산(黃寶鑛山)을 거쳐 서쪽의 판교금광(板橋金鑛)과 천수만까지 이어져 있다. 그 예로 70년대 중반에 웅암포에 중앙대학교 재단 소속의 수백톤급인 현대식 사금채취선이 정박하였다. 그 이유는 3개 금광의 산출기를 타고 오서산 내수가 흘러내리는 포구로 개펄을 더듬어 많은 사금을 채취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배가 서해안 천수만으로부터 보령시 오천항(鰲川港)을 거쳐 웅암포에 이르는 뱃길을 사금 채취구역으로 정한 것은 오서산 금줄기의 사금맥을 찾기 위해서였다. 작업현장은 웅암포로부터 5km이내 구역이었다. 그때 이 사금 채취선에 세계최초로 여자가 승선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중앙대학교 임영신(任榮信)총장이 작업현장을 둘러보기 위하여 여자의 몸으로 채금선을 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 북쪽을 바라보면 축산지(畜產地)로 유명한 양돈(養豚)과 축사(畜舍)의 막사들이 홍성읍과 광천읍 주변에 펼쳐져있고, 남쪽으로 몸을 돌리면 대천해수욕장의 하얀 백사장이 시야에 들어온다. 그 옆 동쪽방향으로 성주산과 만수산이 보인다. 이 산에는 30여년전부터 탄광이 개발되면서 50여km에 걸쳐 여기저기 파헤쳐진 산허리가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캐진 석탄들을 열차로 실어 나르던 옥마·남포·간치·웅천역들도 점찍은 듯이 바라보이고 있다.

동남쪽으로는 작은 수석 같은 칠갑산과 화암, 죽전, 장현저수지가 햇빛을 받아 미풍에 흔들리며 은빛너울을 반사하고 있다. 정상에는 군데군데 해괴하게 생긴 바위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태고 적 부터 신비한 전설을 간직한 고륜(苦輪)바위와 처녀바위들이 먼 옛날 그 무엇을 말하려는 듯 주저앉 기도 하고 드러눕기도 하고, 서있기도 하였다. 이렇게 오서산을 중심으로 한 시야에 들어오는 반경 들이 아름답고 그 지하와 땅위에는 금과 석탄, 관광 등 자원이 풍부하니 우리나라 서부지방의 자랑 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 또한 명산이 아닐까 한다.

□ 문화적(文化的) 가치(價値)로서의 명산

홍성읍의 북쪽에 놓여있는 용봉산은 산모양이 용(龍)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머리는 봉황처럼 생겼다. 그 용은 마치 덕산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홍성읍을 향하여 꿈틀거리며 날아오고 있는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장엄하며 기묘하게 생겼다. 흔히 이런 산을 등산하려면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단조로우며 단조로우면서도 복잡하게 생각된다. 그러나 이 산은 기교가 넘치고 묘한 형상이 많아 아기자기한 등산을 할 수 있어 좋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산에 유달리 문화적 유물들이 많아 더욱 좋다.

용봉초등학교에서 왼쪽으로 나 있는 산길로 8분 정도 오르면 커다란 미륵불이 있는데, 이 미륵불은 얼굴모양이 다정해 보이고 키는 9m정도인데 도각(刀刻)이 정교하면서도 웅대하다. 이 불상은 지방문화재 제87호로 고려 때 작품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런데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미륵불이 아기 못 낳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아기를 점지해준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곳에서 정상에 오르면 커다란 암석 위에 행정당국에서 세운 정상표시 비석이 있고, 이곳에서 동북쪽을 바라보면 홍성지역의 넓은 구릉지가 한 폭의 그림 같다. 충남의 도청이전후보지로서 추천할 곳이라 하니 더욱 넓어 보인다. 이 넓은 대지에 충남의 행정도시를 만들고 주민들이 살아가는 아파트들이 들어선다면 그야말로 장관일 것이다.

정상에서 북쪽으로 남릉을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다보면 여러 모양의 암석들이 이채로운 모습으로 이어져 있다. 그 중에는 말(馬) 모양의 바위도 있어 천진난만한 아이가 되어 손바닥으로 말 궁둥이를 때려가며 말 타는 시늉도 하여본다. 그리고 너른 암반 위에서 시산제를 지내거나 단체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진귀한 암석들이 많아 어느것 하나 놓치기가 아깝다. 능선을 타고 내려오다 고개마루 넘어 용봉사로 내려오는 왼쪽길목 계단 위에는 마치 범이 몸을 움츠리고 앉아있는 것 같은 암석이 있는데, 그 암석 앞면에 입불(立佛)이 양각되어 있다. 이것이 사적 제355호로 지정된 마애여래입상(磨崖如來立像)이다. 높이 23m의 이 석불은 세밀하고 정교하게 조각되었으며 대단히 인자스러워 보인다. 대략 650여년전 백제시대 만든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곳 주변에서도 백제시대의 기왓장이 가끔 발견되기도 하였다한다. 그리고 이 석불 밑쪽으로는 커다란 묘가 자리잡고 있는데, 이 묘는 조선조 중엽에 정가에서 높은 벼슬을 하던 어떤 명문가에서 명당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절을 그 아래쪽으로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병조참판을 지낸 자신의 묘를 썼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 절터에는 큰돌을 파서 물을 부어 쓰도록 만든 석조(石槽)를 비롯하여 석구(石臼, 돌절구), 맷

돌 등 유물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조선시대 것으로 추측되며, 절터 옆에 버려져있던 것을 지금은 흥성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다. 이 묘의 오른쪽 아래쪽에는 그때에 옮겨진 절이 있는데, 지금은 용봉사(龍鳳寺)라 불려지고 있다. 크기는 2동으로 26평 정도였는데 현재는 2동이 더 건립되어 있고, 옛날의 2동은 광무 10년(1906년)에 창건된 것으로 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문화재는 이것들 이외에도 이 절 입구의 암반에도 마애여래입상(磨崖如來立像)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지방유형문화재 제18호이다. 얼굴은 크기에 비하여 적은 편인데, 근엄해 보이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있다. 이곳에서 다시 오른쪽 능선 길로 오르면 온갖 만물상을 그려낸 병풍바위가 나타난다.

용바위에서 덕산온천쪽으로 능선을 타고 가면 수암산에 오르게 되는데, 이곳 역시 석상들이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곳에서 산능선을 타고 덕산온천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1978년 흥성지진 때 산이 갈라져 생긴 산 파열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산에는 하나의 전설이 얽혀 있는데 이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있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는 용봉산이 옛날에는 팔봉산(八峰山)이었는데 조상들이 크게 보이는 여덟 개의 산봉우리만 보고 이름을 팔봉산이라 했다는 것이다. 또 그 옛날에는 일월산의 장수와 팔봉산(용봉산)의 장수가 서로 돌팔매질을 하였는데 일월산의 장수가 더욱 힘세어 더 많이 돌을 던져 일월산에는 돌이 적고 용봉산에는 돌이 많이 쌓였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산의 형상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한다.

□ 명산 산행 길에서

나는 시간의 여유를 찾아 가끔 이 명산들을 찾는다. 이 명산들을 산행하노라면 무한한 사색이 꼬리를 물며 어떤 실마리가 풀리고 있기 때문이다.

흥성의 산들에는 어떠한 독특한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어 좋다. 그러면서도 인자하고, 근엄하며, 수많은 역사의 소용돌이를 겪으면서도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산들에서 나는 산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철학을 느낀다. 이 산들은 나에게 영원한 삶의 안식을 주었고 엄연한 호연지기를 가르쳤다. 그리고 나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모든 피조물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줄 알았다. 세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대자연이었다.

거대한 세상을 제자리에 돌아가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자연인 것이었다. 사람은 단지 이 자연의 일부분에 불과했다. 이 작으마한 일부분을 대자연은 아버지처럼 항상 지켜주고 있다.

산이 품고 있는 선조들의 발자취 그리고 가르침, 옛문화와 유적, 성인들의 숨결, 포근함과 신성한 정서, 고향의 향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어머니 품속 같은 이 산들이 우리들을 지켜주고 대신 우리는 보호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이 산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면 말려야한다. 어머니 같은 자연을 파괴하는 이웃은 두어서 무엇하겠는가. 그리하여 자연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치를 충분히 누리며 살자.

흥성을 이 명산들이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 명산을 지켜야한다.

아주 영원토록...

그 해 겨울의 포장마차



고광철 수필가·한국문협 홍성군지부 회원

찬서리 내리고 매운 바람에 길가의 낙엽들이 텅구는 초겨울에 그는 세 번째 징역살이에서 출소했었다. 그의 모습은 무엇인가 굳게 마음먹은 모습이었고, 전과 달리 옷차림과 언행이 단정하였다. 인생을 새 출발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기 에 주변에서는 진심으로 그의 출소를 축하해 주었었다.

마땅한 일거리가 없는 그를 위해서 주변의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 포장마차를 꾸며주었고, 거기에 필요한 몇 안 되는 집기를 장만해 주었다. 그렇게 해서 대로변 상가의 뒷길 빈터에 자리잡고 포장마차 장사를 시작했던 것이다. 오후 늦게 시작해서 저녁 깊게까지 하는 영업이라서 앞길 상가가 문닫으면 자투리 손님을 상대로 장사하기에 거리와 장소가 괜찮은 것 같았다.

처음 개업하는 날에는 주변에서 보내준 자그마한 꽃 화분도 몇 개 있었다. 그런데 제법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았고, 그렇게 성실하게 몇

년 모으면 앞길에 나가 당당하게 가게를 세워서 영업할 수 있는 희망의 싹을 볼 수 있었다. 나도 늦은 밤 한잔 더 생각이 날 때면 친구들과 몇 번쯤 들렀었다. 그렇게 흰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에게서 잠시의 희망이 지나쳤음인지, 아니면 스스로 땀흘려 일어서려는 의지가 아직 부족했음인지, 차츰 풀어지는 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초저녁부터 술에 취해 손님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보였다. 술 값 문제로 손님에게 거칠고, 야한 징역살이 용어들이 인내하지 않고 정화되지 못한 채 무차별 발사되고 있었던 것이다. 술안주로 나오는 음식의 맛이 전날보다 못했으며 청결하지 않은 식탁과 탁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차츰 손님의 발길이 멀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겨울밤은 깊어 가는데, 텅 빈 포장마차에서 그는 혼자서 스스로 취해가고 있었다. 가장 추운 겨울 한 철 잘 벌어야 할 시기에 그는 그렇게

스스로, 서서히 흐트러진 모습으로 무너져 내리며 단골 손님들을 놓치고 있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인내하고 더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게 하여 남아있

면 그렇게 쉽게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큰길가 상가처럼 허가 내고 세금 내고 가게 세 내고 하는 것이 아니기에 술값과 음식값이 더욱 저렴했어야 했다고도 했다. 감방에서 갓 출소했기에 더욱 조심스런 모습으로 손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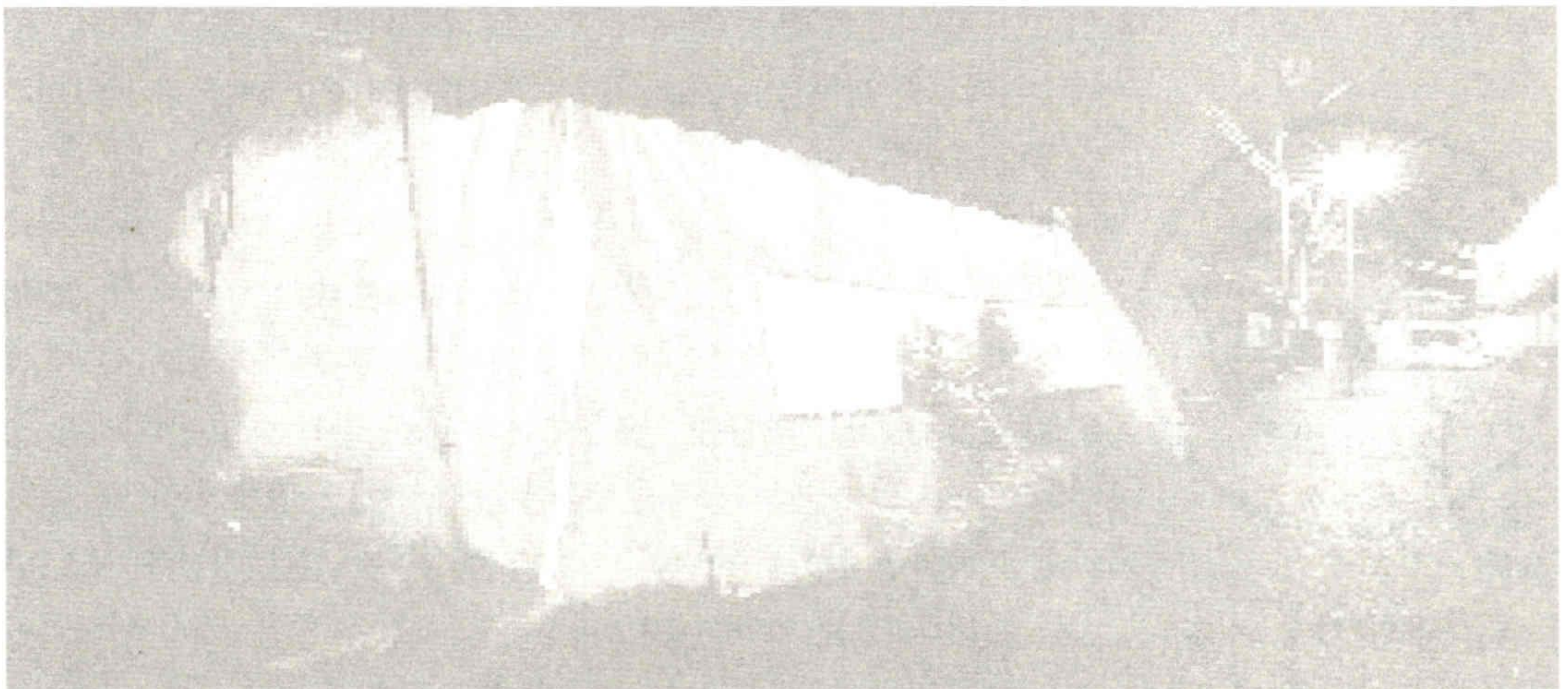
*그 해 겨울이 가고 봄이 올 때까지 주인 잃은 포장마차는
그 거리 모퉁이에서 쓸쓸하고 외롭게 서 있어야 했다*

던 음식 재고가 쌓여가던 날, 그는 포장마차 영업을 포기하고 술에 취한 추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 채 그곳에서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문 닫힌 빈 포장마차만 뒷거리 모퉁이에 힘겹게 서 있었다.

그가 사라진 후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의 입에서 잠시 그의 얘기가 떠돌다 다시 추운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감방에서 출소한 그는 막노동이 나마 직접 땀흘려 노력하여 차린 포장마차였다

을 대했어야 했다고도 했다. 좁고 허름한 포장마차이기에 음식 맛이 더욱 좋았어야 했다고도 했다. 그러기에 포장마차 장사는 아무나 쉽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장사가 아니라고도 했다.

그 해 겨울이 가고 봄이 올 때까지 주인 잃은 포장마차는 그 거리 모퉁이에서 쓸쓸하고 외롭게 서 있어야 했다. 그 후 지금껏 떠난 그의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주부가 정말 알아야 할

환경 상식 스물 한 가지 ③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환경상식 백가지(구자건 지음, 현암사)” 책에서 자료를 발췌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 글을 통해 환경상식에 대해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생 화장지와 환경 마크

환경 오염과 소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소비하는 곳에 환경 오염 있다.”고 생각해도 무리 없을 정도로 소비는 각종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환경 보전을 위해선 소비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상품을 사는 것이 차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동일한 기능과 유사한 성능을 갖춘 상품을 비교해 환경 영향이 적은 상품을 선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나 공인된 기관이 환경 영향이 적은 제품에 일정한 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도움을 준다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환경 마크 제도란 이처럼 환경 오염을 적게 일으키는 상품에 일정한 ‘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이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상품 생산 업자로부터는 환경 오염이 적은 상품 개발을 유도하려는 제도이다. 환경 보전을 위한 일종의 경제적 유인책인 셈이다.

환경 마크 제도가 처음 시작된 나라는 독일이다. 1979년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80년대 후반 이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다. 독일의 환경 마크 명칭은 푸른 천사(Blue Angel)이다.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시기는 1992년 6월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빨라 1989년에 이 제도를 받아들였고, 캐나다는 1990년, 북유럽 5개국은 199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 마크나 환경 성능을 표시하는 심벌과 용어가 각국에 따라 차이가 있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이를 국제적으로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환경 라벨링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될 경우, ‘생분해성(biodegradable)’, ‘재활용 가능한(recyclable)’ 같은 용어는 일정한 성능 실험을 거쳐 인증을 받은 제품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 마크를 얻은 상품 즉, 환경 마크 상품은 같은 기능을 가진 다른 우리나라의 환경 마크 상품에 비해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에너지 또는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상품으로²⁾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³⁾

첫째, 상품 생산 과정에서 자원을 현저히 절약하거나 에너지를 적게 사용해야 하며, 둘째, 품질이 같은 기능을 가진 상품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고, 셋째, 상품이 소비되고 난 뒤 폐기될 때 자연 중에서 분해가 쉽거나 빈 용기를 다시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조건을 더 든다면 품질이나 안전성이 한국산업규격(KS 규격)과 같은 품질 규격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⁴⁾

물론 환경 마크를 받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을 뿐이지 환경 오염을 전혀 일으키지 않는 것은 아니다.

환경 마크 대상 품목은 재생 종이 제품류, 재생 화장지류, 염화불화탄소를 사용하지 않은 스프레이류, 유아용 천 기저귀 등 21개 품목이었으나 스프레이류가 제외되고 절수형 양변기와 저유황 등유 등이 추가되어 1998년 2월 현재 모두 38개 품목이 지정되었다. 시행 첫해인 1992년, 4개였던 품목 수가 두 해 사이에 10배정도 늘어난 것이다. 1998년 2월 기준으로 환경 마크 사용이 승인된 상품은 145개 업체의 216개 상품이다.⁵⁾

1992년 말 현재 66종 3,800개 상품에 대해 환경 마크를 부여하고 독일의 경우 환경 마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홍보 부족과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서울 YMCA가 환경 마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 중 28개 업체를 선정하여 전화 인터뷰를 해 본 결과, 기대와는 달리 환경 마크를 부착한 상품의 판매가 부진해 재고 부담 등 곤란을 겪고 있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⁶⁾

이에 따라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환경 마크와는 별도로 민간 주도의 '녹색 마크' 제도를 운영하려 했던 적이 있다. 환경부가 시행해 오고 있는 환경 마크 제도가 대상 품목의 제한 등의 이유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환경 마크 위원회에 정부 당국자 외에 민간 단체 대표와 소비자 문제 전문가, 환경 관련 전문가가 새로이 참가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 마크 상품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정부에서도 환경 마크 상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부는 '환경 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환경 마크 상품을 국가, 지방 자치 단체, 정부 투자 기관 등 공공 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다.⁷⁾

환경 마크는 국적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하는 상품이 같은 기능을 가진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 보전 효과가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 마크를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품 안내서, 시험 성적서, 해당 상품을 갖춰 환경부 환경마크위원회 또는 환경보전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관계 전문가

2) 환경처, 『1992년판 환경백서』, 1993, 266~269쪽.

3) 문승식, 「환경 마크 제도 활성화 추진」, 『환경운동』 1994년 1월호, 환경운동연합, 52~55쪽

4) 환경처, 『환경 마크 제도 안내(행정 간행물 12000-67730-37-9405)』, 1994.

5) 환경마크협회, 『환경마크』, 1998년 봄호, 47쪽.

6) 정석구, 「유명무실한 환경 마크 제도 시행 1년」, 『환경 리포트』 1993년 5·6월호

7) 중앙일보, 1994년 4월 26일자.

등 15인으로 구성된 환경마크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환경 마크 제안 신청료는 없으나 환경 마크를 상품에 부착해 판매할 경우, 사용 신청료 3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환경 마크 대상 품목으로 지정 받으면 환경마크위원회와 사용 계약을 맺고 매년 운영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기금은 환경 마크 제도 운영과 환경 마크 홍보 사업에 쓰인다.

문의 전화는 서울에 있는 환경마크위원회 사무국이나 환경보전협회 환경마크과로 하면 된다.

환경 마크 대상 상품

대 상 상 품	주 요 부 여 기 준
1) 재생 종이 제품류	- 재생 용지 50% 이상 사용
2) 재생 화장지류	- 재생 용지 90% 이상 사용
3) 재생 플라스틱류	- 폐플라스틱 60% 이상 사용
4) 유아용 천 기저귀	- 100% 면 사용(1회 사용이 아닐 것)
5) 비석면 브레이크라이닝	- 석면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6) 마개 부착형 알루미늄 캔 제품	- 알루미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부엌 싱크대용 거름망	- 거름망의 간격이 1.5mm 이하일 것
8) 무표백·무염색 타올	- 무염색·무표백일 것
9) 물 절약형 수도꼭지	- 사용을 중단하면 즉시 단수될 것
10) 폐면을 이용한 포장재	- 100% 폐면을 사용할 것
11) 폐식용유 재생 비누	- 유지의 50% 이상을 폐식용유로 사용할 것
12) 폐석회를 이용한 벽돌	- 폐석회 또는 폐석회슬러지 90% 이상 사용
13) 폐유리를 이용한 건축 자재	- 폐유리 80% 이상 사용
14) 폐타이어 등을 이용한 제품	- 폐고무 85% 이상
15) 비석면 클러치페이싱	- 석면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16) 교체형 전구식 형광등	- 백열전구에 비해 전력 소모량을 75% 이상 절감할 것
17) 천 장바구니	- 면 60% 이상 사용, 질기고 내구성이 있을 것
18) 폐석분을 이용한 건축 자재	- 폐석분을 무게비로 40% 이상 사용할 것
19) 생분해성 해상용 2짜이클 엔진오일	- 생분해도 CEC규격 L-33-T-82규정 80% 이상
20) 생분해성 유압작동유	- 생분해도 CEC규격 L-33-T-82규정 80% 이상
21) 무기성 폐수처리 오니를 이용한 벽돌	- 폐수 처리 오니는 무게비로 8% 이상 사용 제조할 것
22) 폐목재를 이용한 팔레트	- 폐목재는 무게비로 80%이상 사용 제조할 것
23) 절수형 양변기	- 1회 사용시 6리터 이하의 물로 E\처리하여야 함
24) 저유황 등유	- 황 함유량이 50ppm 이하로 유지

주 : CFCs를 사용하지 않는 스프레이류는 대상 상품에서 제외됨.

생명을 사랑하자

모든 생명은 아름다운 것이다. 특히 어린 생명은 더욱 아름다운 것이다.

사람의 어린 아기, 꽃의 봉오리, 강아지, 송아지, 병아리, 모든 생명의 어린것은 우리의 가슴속에 선한 마음을 지니도록 해준다. 선한 마음을 지니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는 봉사하려는,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아름다운 것은 쓰다듬어 주고 싶은 충동, 그 아름다움을 지켜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가짐이 따르게 되어 있다.

산(善)이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가꾸고 생명을 발전 육성시키는 모든 순수한 행위와 사상을 뜻하는 것이며, 악(惡)이란 생명을 무시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와 그런 생각들을 악이라 할 수 있다. 내 생명을 사랑할 줄 알면 남의 생명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내 생명 사랑의 원리가 도덕이요, 기본윤리인 것이다.

우리 인간들은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아름다움 앞에서는 거짓이 없다.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우리는 신의 위대함을 알 수 있다. 아름답지 못한 자연을 볼 수 있는가. 자연은 전부가 아름다운 것이다. 산의 신비, 파란하늘, 푸른 바다, 서서히 흐르는 강물,形形色색의 꽃을 보자 언덕 기슭에서 사람들의 눈에 떨까 말까한 작은 꽃을 볼 수 있고 강물 속에 담겨 있는 조약돌 하나의 알갱속에 숨어 있는 아름다운 전설을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줄 알면 마음의 행복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 속에서 미의 원류를 찾아 찬양하면서 살아왔다. 우리의 동양화를 보면 거의 대 자연의 심오한 아름다움을 표현했고, 서양사람들은 여성의 미에서 아름다움의 원류를 찾아 즐겨왔다. 남자의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만드신 하느님 최후의 창조물이 여성이다. 여성은 아름답게 만드셨다.

우리나라 여성의 까만 머리와 피부의 느낌, 검은 눈동자, 도톰한 볼, 붉은 입술, 젖가슴의 오묘한 아름다움과 곡선으로 이루어진 몸 전체의 균형. 우리 한민족은 이러한 아름다움의 속에서 그들과 함께 5천년을 살아왔다. 영원한 한국인의 생명이다. 생명존중의 근본이념 속에 한국인의 도덕관이 배어 있고, 한국인의 기본 철학이 스며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인의 기본윤리가 사회적인 생존경쟁의 치열한 싸움으로 나 개인의 패배

**모든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사랑이 충만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남의 형편을 알고, 서로 도와가며 살수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의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참한 현실에 경악을 금할 길 없게 되었다. 그토록 사랑스런 자식 남매를 자기 손으로 한강에 던져 차디찬 겨울 강물 속에 어린 새싹을 죽여버리는 친아버지의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인간으로서의 감정은 이미 사라져 버린 것 아닌가. 2003년 중반경부터 더욱 확산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 정말로 답답할 뿐이다.

자녀살해 또는 동반자살로 죽은 수가 39명, 그중 대부분은 어린 자녀들이다. 30대 여인이 생활고에 찌들린다고 아파트 15층에서 두딸과 함께 뛰어 내려 자살한 사건, 40대 가장이 사업실패 원인으로 자녀 두명과 부인을 공기총으로 살해 해버린 사건, 경기도 시흥에서는 생활고로 아들·딸과 함께 음독자살사건, 정상인으로서의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다.

내가 죽으면 엄청난 고통을 받을 테니까 아이도 죽인다. 이런 생각들은 살인죄보다 더한 죄악이다.

현실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이기심은 자꾸만 빈부격차의 심화를 조성하기 쉽다. 이기심으로 응어리진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남의 잘못만 찾아내려는 이러한 불행한 족속들이 많이 생겨났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되면 이기심에 물들어 당쟁이나 하는 것이 정치인 줄 안다면 그 국민들의 미래와 희망은 어찌될 건가.

선거철이 돌아온다. 아름다움을 아는 인물을 선택해야 될 것이다. 이기심이 많은 사람은 남에게 한을 만들어 주기 쉽다. 그리하여 한을 품게 된다. 한이 맺혀지면 한풀이의 욕망이 생기기 쉽다. 물론 지성으로 극복되는 사례가 많지만 살아가는 데는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모든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사랑이 충만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남의 형편을 알고, 서로 도와가며 살수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지니고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한지

이 글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한지(이승철지음, 현암사)에서 발췌한 자료이며, 우리 한지를 알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 한지의 어원

오늘날 우리 종이는 크게 한지(韓紙)와 양지(洋紙)로 나눌 수 있으며, 한지는 수부지(手浮紙:수초지(手抄紙))와 기계 한지로 나눌 수 있다. 수부지는 손으로 뜨는 종이를 말하는데 통상 한지라 불리는 것으로, '고유의 인피(靱皮) 섬유로 된', '손으로 뜬(手浮)', '동양적 품격을 지닌' 종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이것은 기계로 생산한 것이 아니라 수공예적 가치를 지닌 우리 고유의 종이라는 뜻이다. 기계 한지는 만드는 방법은 같으나 기계를 사용하여 대량으로 제조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한지의 시초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우리 민족은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우리의 정서에 맞게 변화·발전시켜서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왔다. 한지도 우리 풍토에 맞게 만들어졌으며, 우수한 문화의 산물 중 하나인 것이다.

‘한지’ 명칭의 유래에 대한 주장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양지의 반대 개념으로 등장했다는 주장으로 서양의 것과 구별하려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다.(예 : 한복, 한봉, 한옥, 한의 등)

둘째,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통 종이는, '겨울에 원료를 거둬들여, 겨울철 찬물에 담가 좋은 질의 원료를 만들었다.' 하여 찰 한(寒)자를 써 한지(寒紙)라고 했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화지(華紙), 일본의 화지(和紙)에 대응하여 붙인 우리의 수부지 이름이라는 것이다.

넷째,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닥풀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펄프종이공학회장 겸 전북대학교 교수를 지낸 고(故) 온두현(溫斗炫) 선생이 '大韓民國'의 '韓'자를 따서 지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50년 이전에는 한지 용어에 대한 자세한 문헌 자료나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원래 우리 민족은 종이를 있는 그대로 종이, 조히, 조선종이(朝鮮紙), 창호지, 문종이, 참종이, 닥종이, 저지 등으로 불렀으며, 그 외에 재료와 만드는 방법, 쓰임새, 생산지와 크기에 따라 달리 불렀을 뿐이다. 한지는 서양 문물이 들어와 모든 문화 환경이 바뀌면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생성된 언어이지, 누군가에 의해 독창적으로 창안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도 메이지유신 이후, 기계로 대량 생산되는 '서양식' 종이에 대항하여 일본 전통 종이를 화지라고 불렀다.

아마도 대화(大和) 민족의 재래종이라는 뜻에서 나온 듯하다. 이렇게 화지에 기계화 방식을 도입하여 값싸게 대량 생산하면서 꾸준히 발달한 것이 현재 일본의 기계 화지이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현수식(懸垂式) 화지초지기(和紙抄紙機)가 발명되었다. ‘한지’가 어떻게 형성되었든 간에 한지는 지금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 종이의 대표 언어이며, 모든 글에 인용되는 우리 토착 언어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2. 한지의 전래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종이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는가는 아직 명확히 확인된 바 없다. 그러나 고대에 이미 종이를 만들어 사용했으며, 중국의 제지술을 도입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켰고, 그 품질도 매우 우수하였다. 현존하는 최고의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그 증거이다. 이렇듯 현존하는 유물과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한지의 기원을 대략 2~7세기경으로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세기라고 보는 설이다. 현재 한지의 주원료인 ‘저(楮, 닥나무)’가 중국에서는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2세기 사이에 ‘tag’ 혹은 taig’ 음으로 읽혔다고 한다. 그러므로 닥은 ‘저’의 음이 ‘닥’으로 읽히던 시기에 종이 원료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후 ‘닥’이라는 음이 굳어져 훈(訓)이 되었고, 음(音)에 해당하는 ‘저’는 6세기 이후 중국의 음이 새롭게 들어온 결과이다. 이 같은 근거로 미루어 볼 때 2세기경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저’를 사용한 제지법과 종이의 명칭이 함께 전래되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다음은 3세기, 후반 말 낙랑시대에 중국에서 종이와 제지법이 들어왔다는 설이다. 첫째 증거로 평남 대동군 남정리 채협총을 제시한다. 1931년 조선고적연구회 사업으로 발굴된 낙랑시대 고분 채협총에서 권자본(卷子本)의 질통(帙筒)으로 보이는 채문칠권통(彩文漆卷筒)과 묵분(墨粉)이 붙어 있는 벼룻집, 오수전, 화천, 채문칠권통, 동경, 채화칠협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밀폐된 고분의 칠관 속에서 발견된 닥종이로 보이는 섬유의 모양이 닥종이가 물에 젖어 덩어리진 것과 같았다. 이를 증거로 한대의 종지와 비슷했을 것으로 추측하나, 이것이 닥종이인지는 확실치가 않다. 둘째 증거로 285년에 백제가 일본에 천자문을 전해 주었는데, 이것은 채륜이 종이를 만든 지 180년 뒤로 이미 백제에서 종이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셋째 증거로 3세기 말에서 4세기 말에 걸쳐 중국 대륙에서 난리를 피해 우리나라로 온 이주민이 많았는데, 이들 중에 종이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서기』의 기록대로 중국에서 285년에 백제의 아직기(阿直岐)가 일본에 전했다는 『천자문』과 『논어』 등이 종이 서적일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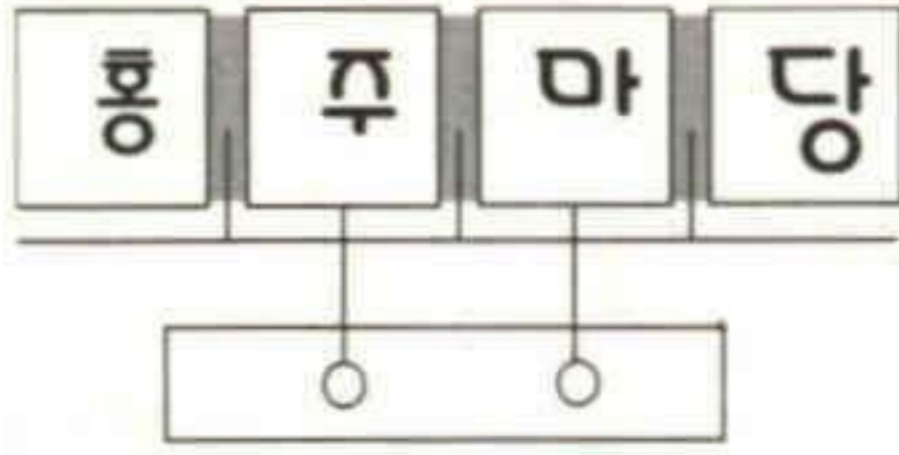
왕인이 『천자문』을 전한 것이 채륜의 제지술 발명보다 180년이 경과한 후라고 본다면, 200년 후반에는 제지술이 우리나라에 보급되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2세기에서 늦어도 4세기까지는 우리나라에 제지술이 전래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4세기 말이라는 설은 384년 동진의 마라난타가 백제에 불교를 전파했는데, 이 때 많은 책과 제지술도 함께 전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근거한다. 한반도의 제지술은 불교의 전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불교 전래 시기를 보면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372년), 진(秦)의 순도와 아도가 불경과 불상을 가지고 와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불경은 종이 수요를 증가 시켰다. 보통 종이에 의해 인류의 정신 문명이 전해지므로 372년에 전래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6세기 말에서 7세기 이전이라고 보는 설은 다음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6세기에는 신라에서 많은 유학생과 승려가 당으로 유학을 가는 등 교류가 많았다. 이때 먹, 붓, 제지법이 전해졌을 것이다. 둘째, 불국사의 석가탑에서 다른 유물과 함께 나온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두루마리는 석가탑을 창건한 751년에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제지기술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일본서기』의 기록에 610년 고구려의 승려 담징(曇徵)이 일본에 채색, 종이, 먹, 맷돌 등을 만드는 방법을 전해 주었다는 것이다. 종이의 시조라 불리는 채륜의 묘에서 돌절구가 출토된 점으로 보아 이 시기에 중국에서는 맷돌 등을 이용하여 섬유를 잘게 갈아 종이를 만들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담징이 종이와 함께 일본에 전했다는 맷돌은 종이 제조 도구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종이 만드는 데 맷돌을 썼을 것이며, 이는 우리 제지법이 중국의 종이 기술과 같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751년 전후는 우리 한지(韓紙)와 중국의 화지(華紙)가 구별되는 시기이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8세기 이후 종이’는 중국처럼 섬유를 잘게 갈아서 만든 것이 아니고 두들겨서 종이를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종이로 가장 오래된 고구려의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 섬유를 자르지 않고 두드려서 고해(叩解)한 것으로 보이며, 그보다 후대의 종이 『법화경(法華經)』의 품질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7세기 이전에는 이미 상당한 기술이 쌓여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제지술은 그 훨씬 이전 중국의 것을 모방하던 시기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 설 중 현실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가장 근거 있는 설은 7세기 이전이라는 견해이다. 이 시기에는 이미 중국과 다른 우리만의 종이 제조 방식이 성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증거물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들 수 있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



《한시》

癸未年歲暮 再訪魯恩壇
(계미년세모 재방노은단)



우송 이해현

홍동농협조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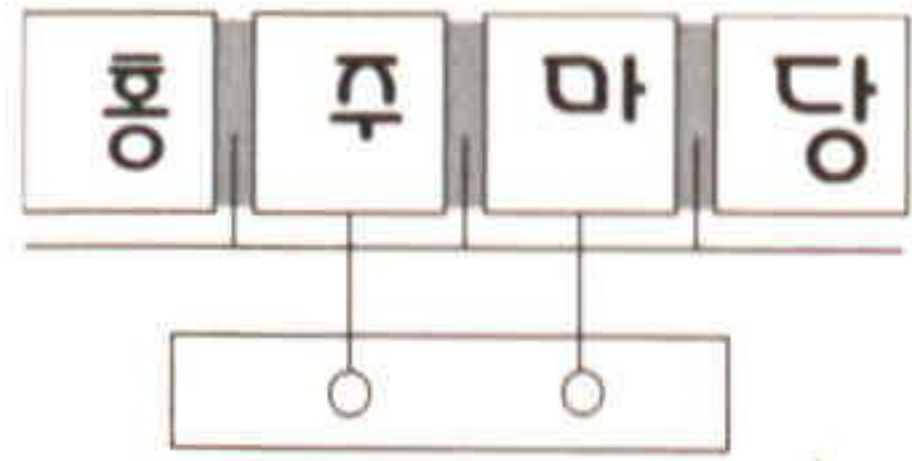
義跡魯壇 本邑東(의적노단 본읍동)
永遺靑史 起淸風(영유청사 기청풍)
鴻毛體魄 君恩重(홍모체백 군은중)
死守綱常 泰嶽崇(사수강상 태악숭)
告變失期 悲滅禍(고변실기 비멸화)
天機不得 恨無窮(천기부득 한무궁)
江山歲暮 飄寒雪(강산세모 표한설)
階下仰欽 萬古忠(계하양흠 만고충)

계미년 저문 해에 노은단을 다시 방문하다.

【해 설】

노은단 의로운 자취 홍성읍의 동쪽에 있어
청사에 길이 남아 맑은 바람을 일으키네.
인군의 무거운 은혜 몸과 마음을 가볍게 바쳤고
죽음으로 지킨 바른 도리는 태산보다 드높다.
슬프다!
고변으로 때를 잃어 멸문지화를 당하였고
천기를 얻지 못하였나니 그한이 무궁하도다.
세월은 저물어 강산에는 찬눈만 날리는데
만고의 그 충절에 계하에서 우러러 공경 드리다.

※ 주 : 노은단은 홍성군 홍북면 노은리에 위치해 있으며, 성삼문 선생의 생가지로 전해지고 있다.
집현전학사 성산문, 형조참판 박팽년, 직제학 이개, 예조참판 하위지, 사예 유성원, 도총관 유응부 등
의 사육신과 성삼문선생의 부친 윤검 성승 등 일곱분 충신의 위패를 봉안한 곳으로 매년 음력 10월
15일에 추모의 제향을 올리고 있다.



라일락 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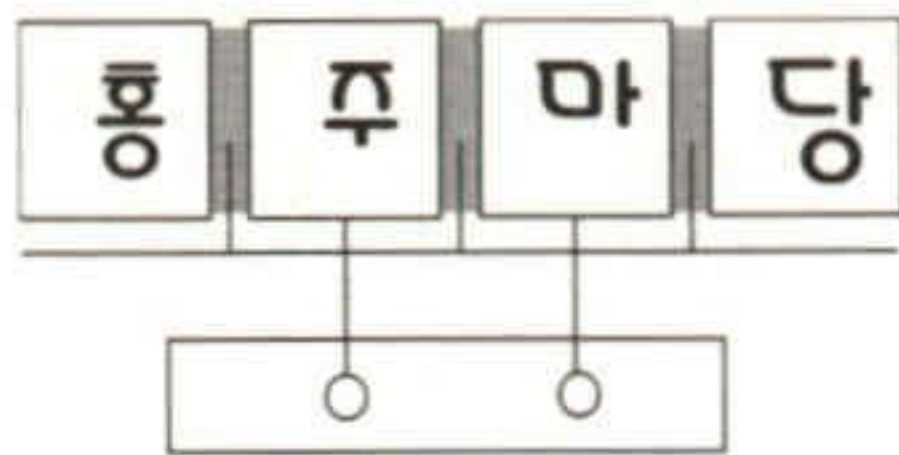
-암으로 하늘나라 눈꽃 천사가 된 제자를 그리며-



김정명 광천고등학교 교사

열여덟 여린 가슴
피지 못한 꽃 한 송이여!
우울한 잿빛 하늘에
스쳐 가는 봄바람
훔날리는 꽃잎의 운무를 보았지!
아름다운 눈웃음은
눈물 꽃으로 피어
철없이 나부끼네!
아! 미움도 설움도 없이
버림받은 인간을 조롱하며
어디로 떠나갔을까?
잔잔한 미소로
우리를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고
어디로 갔을까?
고운 햇살 눈부신 아침
살며시 눈을 떠보아도
소박한 눈망울을
볼 수 없게 되었지!
해맑은 미소는
한 마리 나비로 날아드는구나!
너를 만날 수 없어
보라빛 라일락 향기라고 부르겠어!
눈빛 멀어진 너를
그윽한 꽃내음이라고 부르겠어!





동강



최규원 **구항파출소 경장**

나리꽃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구비를 돌아
포말로 새하얀 작은 돌멩이를 구르며
형용색색의 병풍 같은 절벽을 휘감고 돌며
끊임없이 미지로 발을 내딛는 저 동강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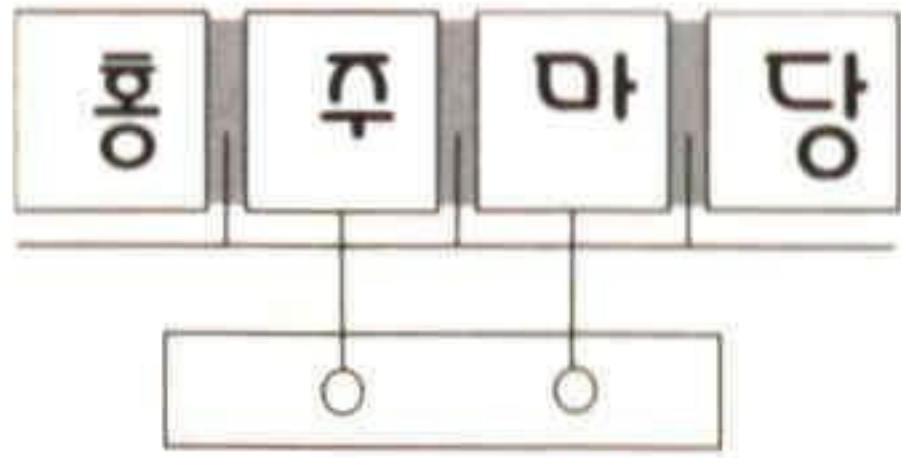
어느 땀줄에서 정기를 받아 첫 발을 내 딛는지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야하는지 모를 몸부림으로
바위를 깎아 계곡을 만들고 강이 되어서
처절한 몸부림으로 어데로 흘러가느냐

굽이치는 힘찬 물줄기 속에 생명을 키우고
깎아 놓은 절벽 틈 사이 낙락장송 벚을 삼아
가녀린 물줄기들을 제 살에 부치우고
물살에 힘을 주어 너는 어디로 가느냐

마당바위 한 편에 걸쭉한 막걸리로 시를 읊고
치맛단 살포시 올리며 춤을 추는 기생들과
물살에 힘겨워 하며 노를 젓던 사공들
지금은 네 추억 속에 잠기어 있느냐

피어나는 아침 물안개로 얼굴을 씻고
떠오르는 햇살에 두 팔 벌려 기지개 켜고
은하수 저 멀리서 들려오는 자장가 소리로
생명의 힘 줄기 되어 너는 어디로 가느냐





어머니

이정옥 **홍성음** 오관리

며칠전,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돌아가신 시어머님의 제사라 힘들었노라고. 그러면서 좀 더 크고 비싼 조기를 사다보니 가슴 뭉클한 후회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복받쳐서 한참을 울었노라고.... 푸념과 투정을 한 후에야 전화를 끊었다.

하늘을 바라보았다. 참으로 맑아 보였다. 가는 구름도 참으로 예뻐 보였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장마가 길었다. 우리들 가슴을 우울하게 했던 태풍 매미도 이제는 가을의 문턱에 밀려 계절 속으로 묻혀버렸나 보다.

조금은 쌀쌀해진 날씨에 스웨터의 단추를 잠그면서 오늘도 조용히 방문을 열어보았다. 정겹게 마주보고 주무시는 두 분의 모습에서 세상의 그 무엇하고 바꿀 수 없는 행복을 찾아본다.

친구처럼, 비싸고 커다란 조기를 사기 이전에 십사년을 삼대가 함께 살아오는 나의 소중한 행복을 고이고이 가슴으로 지키며 살고 싶기에....

지난 시간, 나 또한 투정도 부리고 원망도 하고 가슴으로 흘린 눈물 또한 많았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그런 후회와 아픔보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랑을 하면서 살고 싶다.

내 나이 중년을 넘어 상념도 사랑으로 안을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살고 보니, 그 짧은 시간이 왜이리 안타깝기만 하는지....

혈압으로 두 번씩이나 쓰러지면서 병원신세를

지셨을 때, 눈물도 흘리고, 원망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세월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깊은 정이 들어버린 어머니. 이제는 건강해지신 몸으로, 조금은 굽어지신 등으로 오늘도 어김없이 넓은 거실을 걸레질하시고 손자의 교복도 단정히 다림질해 놓으시면서 당신만의 행복을 가꿔나가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넉넉하신 삶의 그림자인 아름다운 관음의 모습을 찾아본다.

며칠전, “에미야! 난 죽는 것이 무서워. 화장을 하면 얼마나 아플까? 정말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을까?”

“에미야! 나도 죽으면 부처님 계신 극락세계로 가고 싶구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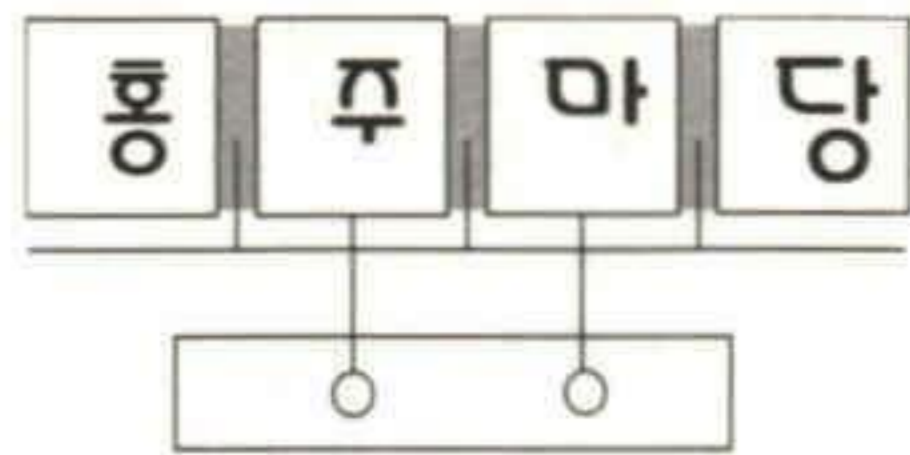
슬펐다. 내게는 늘 당당하셨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무상이란 새삼 이런 것일까? 눈가에 작게 맺혀지는 눈물을 닦아 내렸다.

어머니! 오래만 살아주세요. 당신의 오남매를 키워내면서 아버님의 옆자리를 소리 없이 지켜오신 인고의 세월을.... 그동안 찾지 못하고 살아오신 행복을 제가 다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투정도 사랑으로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오래오래 아버님하고 함께 저희들 곁에 계셔 주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지켜내고 싶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초가을 오후 한 생각,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세월이란!

주호창 **홍성문화원 회원**



지금은 2003년 계미 양과 2004년 갑신 원숭이가 긴 세월의 경기장에서 배턴 터치하는 순간! 요즘 같은 연말년시가 되면 어느 때보다 시간과 세월에 대한 생각이 깊어진다.

과연 세월이 무엇이며 시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사라지며 삶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는 철학적 질문 이전에 목전에 전개된 현실이기에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흔히 세상사의 복잡한 문제들도 시간(세월)이 약이라고 자위하며 실제로 처절한 슬픔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망각하기에 살수가 있는 것이다. 이 지구상의 인간들은 분초가 쌓여 하루, 한 달, 1년, 10년, 그리고 일생이라는 단위로 살아가며 해가 바뀔 때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한다.

과연 그것이 증가(+)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손실(-)을 뜻하는가 하는 문제는 사람마다 다른 가치관과 관점으로 살아간다.

어느 시인은 나이를 “떨어지는(-) 낙엽으로 세지 말고 하나씩 늘어나는(+) 친구로 계산하라”고 했다.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간의 흐름은 변함 없이 일정한데 사람에 따라서 그 느낌의 다를 뿐이다.

같은 세월도 “10대에는 기어가듯 하고 20대는 걸어가듯 하고 30대는 뛰어가듯 하고 40대는 자전거 타고 50대는 자가용 타고 60대는 비행기

타고 날아가듯 빨리 지나간다”고 했다.

또한 그 빠름을 10대는 시속 10km로 20대는 20km... 80대는 80km로 달리는 자동차에 비유하기도 한다.

아울러 늙음의 속도가 60대에서는 해마다 늙고 70대에서는 달마다 늙고 80대에서는 날마다 늙고 90대에서는 때마다 늙고 100세에서는 분마다 늙어 간다고 한다.

그러나 인생 경기에서는 20대의 젊은이가 80대의 노인을 체력으로는 승리할지라도 경력에서는 결코 추월할 수 없는 엄연한 규칙이 존재한다.

그런 세월 앞에 인생은 없고, 없고, 없고, 없다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어릴 때는 철이 없고, 청년의 때는 정신이 없고, 장년의 때는 틈이 없고, 노년의 때는 형편없다가 없어지는 존재로 그 무상함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처럼 갈수록 빨리 지나가는 세월 앞에서 과연 세월이 가는가? 아니면 사람이 가는가? 자문자답해 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세월이 간다고 말하지만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미 만들어진 길 위를 걸어가는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간다는 데에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런 논리로 이미 수 십억년 전에 길처럼 펼쳐진 시간을 따라 사람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세월이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세월 따라 간다는 말이 타당하다.

아무튼 영겁의 세월 속에 우리 인생의 70-80년은 한 점에 불과한 지극히 짧은 생애일 뿐이다.

그나마 짧은 일생 70년을 기준해서 종합 분석한 결과는 잠으로 보내는 시간이 23년, 일하는 시간이 16년, TV보는 시간 8년, 식사하는 시간 6년, 여행으로 6년, 향락에 5년, 병으로 4년, 옷 입고 벗고 몸치장에 2년이 소요되는데 비해 정말 종교적인 영적 삶은 1년도 채 안 된다고 한다.

매일 매일 바쁘게 길을 가는 이들은 분명 어떤 목적지가 있듯이 세월 따라 가는 우리도 가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흔히 “시간을 아껴라”는 말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잘 활용하라는 뜻이다.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가 어려우니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옛 성현들의 말씀처럼 때로는 1초라는 시간 때문에 희비가 엇갈린다.

1초의 늦고 빠름에 따라 사고가 발생되고 올림픽에서는 몇 백분의 1초로 순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어떤 이에게는 하루 24시간도 모자라 허겁지겁하고 어떤 이에게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 지루하게 허비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은 신이 인간에게 가장 공평하게 분배해 준 최고의 선물이기도 하다.

시간은 만남처럼 쌓아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보람 있게 써야 된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의 자

본금과 일생이라는 거액의 자산을 잘 활용하여 많은 이득을 남기고 떠나야 되는 것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삶이란 정지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정진하는 진행형이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되듯이 삶의 종지부를 찍는 그 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투자하여 무엇인가 이루고 떠나야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어디론가 가고 있고 무엇인가 하고 있다.

그 가는 방향이 그 하는 것이 어디이고 무엇이나에 따라 각자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유한한 우리 일생을 감사하며 기쁘고 즐겁고 여유롭게 살아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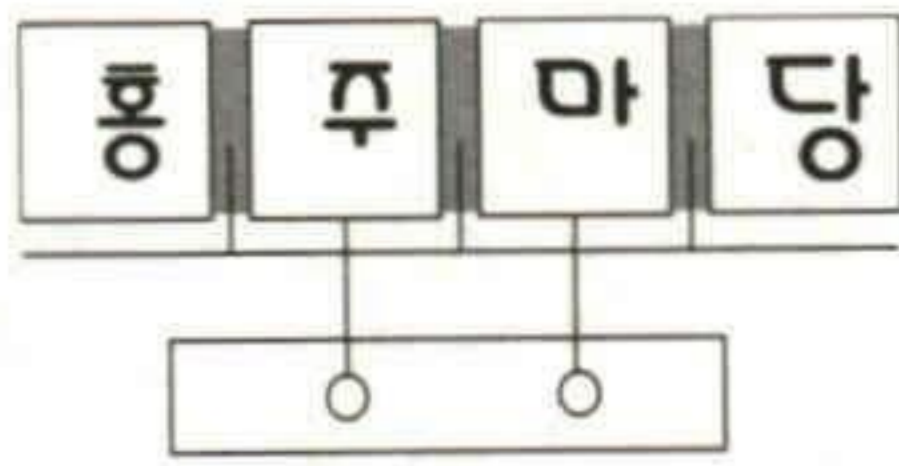
영국 속담에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하고, 한 주일을 즐겁게 살려면 새차를 사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을 아름답게 살려면 새집을 짓고, 평생을 보람 있게 살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어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각기 다른 달란트(능력)를 최대한 활용하여 의미 있는 삶을 조각하고 창조하는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

최고보다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는 인생의 조각가처럼…!



삼화/이엽



피라칸사스와 몬스테라



구명희 **홍부면 봉신리**

한달 전쯤에 내가 다니고 있는 사무실에 화분 하나가 선물로 들어왔다.

화분에 심겨진 화초는 겨울에 접어들고 있는 계절에 아주 딱 어울리는 피라칸사스였는데, 파란 이파리사이로 빠알강게 달려있는 열매가 매우 아름다웠다. 열매의 크기는 팔보다는 약간 컸고 일반 콩보다는 약간 작았으나 한 꼬투리마다 여러 개의 열매가 무리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다. 납작하고도 네모난 화분에 심겨져 있어서 분재의 느낌이 물씬 나는 데다 나선형으로 돌려 올라간 나무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층층마다 제각기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듯 했다.

피라칸사스는 사무실의 여러 직원들로부터 찬사와 사랑을 흠뻑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소장님과 나의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 출근하면 제일 먼저 녀석에게 눈인사를 했고, 제일 먼저 꺼내는 화두도 신문의 기사나 날씨가 아닌 그 녀석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무실의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장소에서 예쁜 모습으로 늘 우리를 기쁘게 해주던 그 녀석이 언제부터인가 표나지 않게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가지 밑부분부터 이파리가 말리면서 떨어져나가고 팽팽하던 열매는 쭈글쭈글 시들기 시작했다. 물도 알맞게 잘 주었는데(눈속에서도 자라는 녀석이라 추위 때문도 아닌 것 같았고) 영 원인을 알 수 없었다. 다만, 화분에 옮겨 심기운지 얼마 되지 않은 연고로 자리를 못 잡고 심한 몸살을 앓는 모양이라고, 조금 있

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그러나 그 녀석은 우리의 바램을 저버린 채 아주 말라 버렸고 열매 또한 보기 흉할 정도로 쭈글쭈글해져 버렸다. 죽은 건 확실한데 너무 아쉽고 속상해서 차마 버리지 못하고 그냥 하루 미루고 있던 중 하루는 그 화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그래서 뿌리가 썩는 냄새인가 했었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혹시 살까 하고 청양의 구기자술을 밑으로 흐를 정도로 흠뻑 주었는데 아직까지 소생의 기미가 없다고 하셔서 모두가 웃었다. 정말로 그 녀석의 뿌리부분에선 심한 술냄새가 풍겼다.

이파리는 하나도 없이 다 떨어지고, 열매 또한 모두 시들어서 그 화려했던 모습을 다시 찾아보기는 힘들었지만 그 나선형의 기본자태와 잠깐동안이나마 들었던 정, 이런 것들로 인해 그 나무는 쉽게 버려지지 않은 채 자신의 자리를 간신히 지탱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그 녀석이 밑가지부터 떨어진 이파리 자리에다 새 싹을 틔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뿐이 아니다. 쭈글쭈글하던 열매가 다시 팽팽하게 차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매일매일 그 녀석을 체크하는 일로부터 하루가 시작되었고, 서서히 서서히 그 녀석은 새 삶의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화훼업자까지 와서 보고는 다 틀렸다고, 죽었다고 했던 놈이 다시 싹을 틔우는 것도 신기하지만 시들어가던 열매가 다시 싱싱해진 것은 정말 내 상식으로는 기적이었다.

약 25년전 나는 아가씨였었고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내가 근무하던 건물의 각 층 계단 입구엔 보기 좋은 화초들이 양쪽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높은 분들이 드나드는 곳엔 제일 멋있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그 중의 하나가 몬스테라였다. 덩굴이 아닌 부채처럼 펼쳐진 아주 기품 있고 멋있게 생긴 놈이었는데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늘 멋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뿌리 한쪽에서 곁가지가 올라오고 있는 걸 발견했다. 호심을 품고 잘 키워주기만을 바라며 기회만 엿보고 있던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손가락으로(알맞은 연장이 없었다) 짹짹 녀석을 모체로부터 떼어내어 핸드백에 넣었다. 예쁜 화분에 심어놓고 애지중지 기르다가 결혼을 하게 되어 친정에 놓고 왔는데, 나 없는 동안에도 그 녀석은 아주 멋있게 잘 자라주었고, 나는 그놈이 어서 곁가지를 내어주기만을 기다렸다. 몇 년을 자란 뒤에 그놈은 곁가지를 내어 주었으나 너무 일찍 떼어와서 그런지 제대로 자라질 못했고, 삼사년을 시들시들 고생만 하다가 그만 죽어 버렸다. 몇 년후에 또 하나를 떼어다 심었는데 묵은 가지에서 생긴 늫둥이라 그런지 몰라도 모양이 일자로 바르게 크질 않고 자꾸 옆으로 마치 누운자세로 밑게 자라서 난 별로 마음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성 또한 들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바르게 자라게 할려고 다시 뽑아서 바로 세워도 봤지만 허사였고 몇 번이나 같은 시도를 하다가 아예 포기하고 내버려두었더니 구부러진 모습으로 밑게 자랄 뿐만 아니라 성장도 대단히 더디어서 갖다 심은 지 9년이 되었어도 영 시원치 않았다. 얼마전, 난, 이쯤에서 그와의 하직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를 정리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 그저 화초 하나 없앤다는 단순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 큰맘을 먹고 드디어 그 녀석을 정리하기로 했던 것이다. 화분을 쏟아보니 뿌리부분이 오래 전부터

썩어서 마치 빈 수수깡 같았다. 9년을 그 상태로 버텨온 것을 보면 살려는 의지가 꽤나 처절했을 듯 하다. 온 몸이 빈 쪽정이가 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주인의 무관심과 자신의 약점이라는 나쁜 환경을 거부하고 끝까지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몬스테라는 무정한 주인의 손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짐으로써 마침내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내가 몬스테라를 진작 포기하지 못했던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으리라. 몬스테라 3대를 이어보겠다는 내 고집과, 발랄하고 꿈이 많았던 이십대를 몬스테라를 통해 계속 내 곁에 머물게 하고 싶었던 그리움. 몬스테라엔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을 마음껏 그리고 싶어하던 20대의 내 모습이 있었고, 중년이 다 된 지금의 내 모습을 인정하길 거부하며 20대의 그 끈을 놓고 싶지 않은 내 내면의 모습이 들어 있었다.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피라칸사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주변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마침내 부활과 생명의 싹을 틔워냈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던 몬스테라는 주인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 그만 쓸쓸히 생을 마감해야만 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푸른빛을 더해 가는 피라칸사스와 집 베란다 구석에 초라한 모습으로 추위에 떨던 빈 화분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몬스테라의 대조되는 삶을 통해 잠시 지난날을 생각해 본 오늘 오후였다.□



삽화/이엽



생활의 지혜

【와이셔츠의 소매 때 빼기】

- ☞ 와이셔츠 깃이나 소매의 더러운 부분에 샴푸를 발라 솔로 몇 번 문지른 후 세탁기에 넣어 세탁한다. 바쁠 땐 샴푸를 바른 상태로 그냥 세탁기에 넣고 1시간 정도 후에 세탁기를 작동시키면 된다.

【생선을 구울 때】

- ☞ 생선을 구울 때 프라이팬 바닥에 생선 껍질이 늘어붙으면 요리가 불품 없게 된다. 이럴 경우 양배추잎 한 장을 펼쳐놓은 뒤 구우면 늘어붙지 않는다.

【옷에 흙물이 들었을 때】

- ☞ 감자를 반으로 쪼개어서 얼룩진 부분에 문지른 다음 세탁한다. 흙물이 거짓말처럼 잘 빠질 것이다.

【우산에 녹이 슬었을 때 제거 방법】

- ☞ 우산을 사용하고 말리지 않고 보관할 경우 우산이 필요할 때 펼쳐보면 여기저기 녹이 슬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때 솜이나 휴지에 아세톤을 조금 묻혀 녹슨 부위에 얹었다가 닦아내면 깔끔하게 지워진다.

【비스킷을 바삭하게 보관하려면】

- ☞ 먹다 남은 비스킷을 바삭하게 보관하려면 보관 통에 넣을 때 각설탕 한 개를 같이 넣는다. 설탕이 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비스킷의 바삭한 상태가 지속된다.

【탈모증상에 구기자 달인 물을】

- ☞ 남녀불문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면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등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다. 탈모증상이 있을 때 구기자 잎을 넣고 달인 물로 매일 머리를 감아보자. 이렇게 여러 날 계속 하다보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커튼을 빨 때는 행구는 물에 분유를】

- ☞ 나일론이나 테트론, 유리섬유로 된 커튼은 세탁한 다음 반 컵 정도의 분유나 탈지분유를 물에 풀어 그 물에다 커튼을 한 번 더 행군다. 빨아서 후줄근해진 커튼이 물을 먹인 것처럼 뽀뽀해지기 때문에 새것처럼 된다.

표지사진 작가

조 철 행



- 한국사진협회 회원
- 홍성사진동우회 회원

편집 후기

첫눈이 내렸다.
 이제 정말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음을 실감한다.
 한해를 맞고, 한해를 보내고, 또 한해를 맞고...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시간 속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장애물을 하나 하나 넘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올해도 끝나 가는 지금...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어제를 밑바탕 삼아 새로운 시작을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 될 것이다.

표지사진 설명

▷ 표지사진 : 『여하정』

여하정은 목조와죽의 육각으로 된 수상정으로 비록 규모는 3평 3합 5자에 불과하나 주위에 우거진 고목은 고색이 창연하고 수면을 장식한 연꽃과 금붕어가 경관을 이루며 역대 홍주목사가 하루의 청유를 즐기던 곳이다.

홍주목사 이승우가 이 정자를 세웠고, 12편 60자의 한시가 6각 기둥에 부착되어 있으며, 현재 군청 후정에 안회당 뒤뜰과 연결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홍성문화

2003. 겨울

발행인 이 하 영

편집인 정 재 범

발행일 2003년 12월

발행처 홍성문화원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TEL.(041) 632-3613, 634-9659

1989. 11. 23 등록번호 충남바01100

인쇄처 조양인쇄사(TEL : 041-632-2363)

홍성문화원 회원모집 안내

■ 회원모집 취지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저희 홍성문화원이 새롭게 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홍성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저희 홍성문화원과 함께 하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회원가입에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주민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회원혜택

- 문화원발행 정기간행물 배부
- 문화원개최 행사에 초청
- 문화원 보유자료 열람 및 대관

■ 회원가입

- 문화원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1년회비 : 20,000원

■ 문의사항

-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우:350-807)
- 전 화 : (041) 632-3613, 634-9659
- FAX : (041) 633-1199

○ **홍성문화원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합니다** ○

저희 홍성문화원은 문화예술향을 사랑하고
 홍성의 미래를 의식하며 더 밝은 홍성으로 가꾸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문화창출의 산실로 꾸려가려 합니다

**한문교실, 닥종이인형교실, 서예교실, 주부노래교실,
 내고장역사교실, 도예교실**

알찬 프로그램으로 전문강사들을 모시고 쾌적한 교육공간에서
 여러분의 문화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 **강 좌 안 내** ▶

구분 요일별	프 로 그 램	시 간	과 정	내 용	회 비
화	한문교실 (1층)	오 후 2시~4시	9개월과정	기 초 생 활 한 자 교 육 및 명 심 보 감 강 의	15,000원
화, 목	닥종이인형교실 (1층)	오 전 10시~12시	3개월과정	종 이 를 이 용 한 인 형 작 품 만 들 기	20,000원
수	서예교실 (2층)	오 후 2시~4시	9개월과정	서 예 기 본 부 터 배 우 기	15,000원
	주부노래교실 (2층)	오 후 2시~4시	년중	가 곡, 국 내 가 요, 외 국 가 요 등 노 래 배 우 기	15,000원
목	도예교실	오 후 2시~4시	3개월과정	기 초 부 터 배 우 기	20,000원
	내고장역사교실	오 후 2시~4시	3개월과정	우 리 고 장 의 문 화 역 사 배 우 기 및 현 장 학 습	15,000원

- **접 수** : 수시접수
- **장 소** : 홍성문화원 문화사랑방
- **문 의 처** : 홍성문화원 사무국 (☎ 632-3613, 634-9659)
- ※ 개강일시는 강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홍성문화원은 항상 여러분과 가깝게 있습니다** ○

인삼

〈개화기 : 4월, 용도 : 뿌리는 약용(강장제)〉



인삼

우리 나라 각처 깊은 산의 수림속에서 자라는 다년초. 키 60cm. 뿌리는 봉상(棒狀), 근경은 짧고, 곧거나 비스듬히 서며, 끝에 1개의 원줄기가 나옴. 줄기 끝에 3~4장의 잎은 윤생, 잎자루는 길고, 그 잎은 손바닥 모양의 겹잎. 작은잎은 난형, 도란형,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잔 톱니가 있음.

꽃은 암수한그루, 연한 녹색, 줄기 끝의 윤생엽 가운데에서 나온 긴 화축 끝에 산형화서가 1개 달리고, 5수성, 암술대는 2개. 열매는 납작하고 둥근 모양, 붉게 익음. 염색체수 $2n=44$.

● 인삼은 우리 나라에서 널리 재배하여 약용으로 하고 있으며, 산삼이란 야생 인삼을 말하는데, 약효가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됨.

제 길을 제 스스로 가게 밝혀주는